



서울대 미주동창회보

제347호
2023년 3월호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ASSOCIATION IN THE USA

www.snuaa.org

news@snuaa.org

‘뺑’ 터진 서울대 졸업식~ 김성열(치대 61) 동문의 유머와 감동을 담아낸 축사 ‘화제’



지난 2월 23일(한국시각) 열린 서울대 치대 졸업식에서 김성열(치대 61) 동문이 ‘나눔의 삶’을 주제로 축사를 하는 도중 단상의 교수들이 웃음을 참지 못하고 있다. 이날 김 동문은 환자를 친구에 비유하며 이들과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하는데 치과를 나갈 때는(친구인데도) 돈을 낸다고 조크, 세상에 이렇게 좋은 직업이 어딴냐고 반문해 엄숙한 졸업식장에 한바탕 폭소가 터져나왔다. <관련기사=8면>

유홍림 신임 총장 미국 온다 미주 동창회 평의원 회의 참석 ... 취임 첫 해외 방문 6월9~10일 라스베가스 웨스트게이트 호텔

유홍림 신임 서울대 총장이 미주 동창회 제 32차 평의원 회의에 참석한다. 총장실 관계자는 미주 동창회 측에 이메일을 보내 유 총장이 네바다주 라스베가스에서 열리는 평의원 회의에 참석, 미주 동문들을 만난다고 공식 밝혔다.

평의원 회의는 오는 6월 9~10일 라스베가스 웨스트게이트 호텔에서 열린다. 유 총장은 10일 개최되는 디너 리셉션에서 축사를 할 예정이다. 이날 동창회 발전에 기여한 동문들에게 공로패도 증

정할 계획이다.

유 총장이 취임 첫 해외 방문지로 미국을 선택한 것은 서울대 전체 커뮤니티에서 미주 동창회가 차지하는 비중이 그만큼 크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평의원 회의에는 유 총장을 비롯한 주요 보직 교수들은 물론이고 김종섭 총동창회장 등 동창회 고위 임원들도 다수 참석한다.

이번 평의원 회의에서 2년 임기를 마치는 노명호(공대 61) 회장의 뒤를 이어 이상강(의대 70) 동문이 회장에 공

식 취임한다.

평의원 회의는 미주 동창회 최고 의결기구로 산하 27개 지부 회장들과 등록회원 숫자에 따라 각 지부에 배정되는 평의원들이 참가한다.

또한 종신이사(실버 및 골드이사 포함)들도 회의에 참석하면 평의원 신분을 갖게 돼 표결에 참여할 수 있다.

한편 이번 회의는 처음으로 일반 동문들에게도 오픈한다. 회의 기간이 여름 휴가철이 본격 시작되는 6월이어서 동창회 측은 호텔 객실을 충분히 확보,

가족여행을 계획하는 동문들에게 실비로 제공할 방침이다. <관련기사=13면>

LA 총영사관 평화음악회 특별 후원

LA 총영사관이 오는 6월 28일 월트디즈니콘서트홀에서 열리는 평화음악회를 특별 후원한다.

김영완 총영사는 지난 3월 3일 노명호 회장과 이상강 차기 회장 등 미주 동창회 회장단을 만나 음악회가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협조를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평화 음악회는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한미동맹재단(이사장 유명환·법대 64)과 주한미군전우회(회장 커티스 스캐퍼로티·전 한미연합사령관), 서울대 총동창회(회장 김종섭·문리대 66)가 공동주관하는 행사다.

평화음악회는 ‘마에스트로’ 금난새의 오케스트라 지휘로 막을 올린다. 비제의 오페라 ‘카르멘’과 미국 작곡가 조지 거슈윈의 ‘랩소디 인 블루’ 외에도 유명 솔리스트들이 참여한다.

성남시향도 음악회에 출연, 한미동맹의 가치를 되새긴다.

‘지진 참사’ 튀르키예 성금 답지

미주 동창회가 튀르키예(터키)와 시리아에서 발생한 지진 피해 주민들을 위한 성금모금 캠페인에 동문들의 참여가 잇따르고 있다.

미주 동창회는 임원회의를 통해 5,000달러를 기부하기로 이미 결정한 바 있다. 노명호(공대 61) 동창회장도 성금 캠페

인에 동참해 2,000 달러를 보내왔다.

이외에도 하틀랜드 동창회의 김시근(공대 72·미주 동창회 종신이사) 동문과 이호진(간호대 74) 동문도 ‘형제의 나라’ 튀르키예의 참사에 가슴이 미어진다며 성금대열에 합류했다. 튀르키예는 6.25 전쟁에 참전해 2,000여 명의 희생자를 냈다.

강진 사망자는 3월에 접어들어 5만명을 넘어섰다. 특히 튀르키예 동남부 지역에 집중폭우가 내려 피해가 속출하고 재난민들이 더욱 어려움에 처해있다.

미주 동창회는 지난해에도 러시아의 침공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위해 성금을 모은바 있다.

동창회를 통한 기부금은 세금공제혜택이 주어진다. 미주 동문들의 지진 성금은 유엔산하기관인 유니세프(UNICEF)를 통해 현지로 전달된다.

▲문의: 818-321-2214
(이호진 총무국장)

‘목화 할머니’ 김필주 박사
관련기사=4면

미주동창회 주소

SNU Alumni Association in the USA
2410 James M Wood Blvd., Los Angeles, CA 90006-2005
Tel: 213-908-5586 Email: snuaausa30@gmail.com

서울대 미주동창회의 공식 명칭은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Association in the USA입니다. 동창회비와 후원금을 보내주시실 때는 pay to the order에 공식 풀네임 또는 약칭 SNUAA USA를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미주동창회는 기부자들이 세금 보고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비영리단체로, EIN(employer identification number)은 13-3859506 입니다.

한국의 시조 내년엔 달에 간다 총 11편 타임캡슐에 실려... 시카고 세종문화회 선정



박종희
의대 69

한국의 시조가 달 착륙선을 탄다.

박종희(의대 69) 세종문화회 사무총장은 한국의 시조 11편이 달에 보낼 시집 '폴라리스 트릴로지(Polaris Trilogy)'에 수록됐다고 밝혔다. 시집은 2024년 달 착륙 우주선의 타임캡슐(Lunar Codex)에 실린다.

폴라리스 트릴로지는 세계 각국의 시를 모아 지난 1월 책자로 발행했는데 한국의 시조가 이 책에 수록된 것이다.

폴라리스 트릴로지의 수석 편집자인 조이스 브링크만은 세종문화회의 웹사이트에서 시조를 발견, 작품의 내용과 구성에 매료된 나머지 박 사무총장에 연락해 트릴로지 수록이 성사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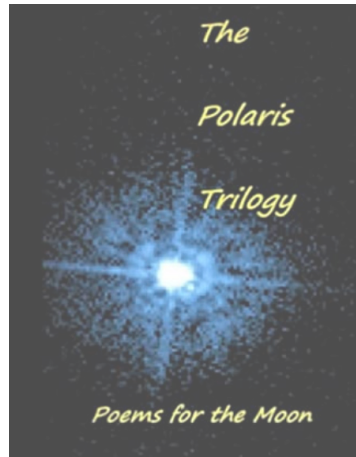
박 사무총장은 한국시조협회에 이 프로젝트를 소개하며 시조 추천을 부탁한바 협회가 보내온 작품가운데 8명의 시조 시인의 작품을 선정했다. 이와 함께 미국의 시조시인 3명의 작품을 포함, 모두 11편의 시조를 트릴로지에 보냈다.

연방항공우주국(NASA)은 오는 2025년 인간을 달에 착륙시킬 '아르테미스(Artemis)' 프로젝트를 발표했는데 이에 앞서 과학기술 테스트를 할 수 있는

장비와 계기 등을 달 착륙선에 실어 보는 계획이다. 나사는 이 달 착륙선에 싣고 갈 타임캡슐을 준비하고 있다.

타임캡슐에는 현대 인간의 문화활동을 대표하는 문학·음악·영화·미술작품 등을 디지털 폼으로 바꿔 저장, 달에 보내진다. 한국의 시조를 포함하는 '폴라리스 트릴로지'도 디지털화 돼 타임캡슐에 실린다.

'계관시인' 조이스 브링크만이 주관해 만든 이 시집은 고유언어로 쓰여진 주요국 시인들의 작품들을 모았다. 이 시집의 지구판은 지난 1월 출판돼 아마존에서 구입할 수 있다.



우주선에 실려 달에 보내질 시집 '폴라리스 트릴로지.' 한국의 시조 11편이 수록돼 있다.



'아르테미스'는 54년만에 재개된 나사의 유인 달 탐사 프로젝트다. 미국은 달에 기지를 세워 화성탐사의 전진기지로 삼을 계획이다.

시집 '폴라리스 트릴로지'에 수록돼 유인 달탐선 '아르테미스' 프로젝트 박종희 동문 등의 영문시조도 포함

작품들은 각 지역에 부과된 주제에 따라 쓰여졌다. 아시아와 북미지역 시인들은 해와 달·별, 유럽과 아프리카

는 바위와 물·공기, 남미와 호주의 시인들은 얼음·바람·불을 주제로 작품을 냈다.

세종문화회(Sejong Cultural Society)는 ...

지난 2004년 시카고 서울대 동창회가 설립한 비영리 단체다. 한국의 문화와 문학을 미국의 초·중·고등학교 학생들과 교사들을 주 대상으로 소개하며 나아가 한국의 문화가 미 주류문화의 한 구성요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발족 취지다.

세종문화회는 박종희 동문이 제안해 동창회 이사회가 만장일치로 승인, 설립됐다. 박 동문은 발족 당시부터 사무총장을 맡

음악경연대회와 영어로 작품을 쓰게 하는 세종작문경연대회(수필/시조 부문), 한국적인 테마가 포함된 세종국제작곡경연대회 등을 매년 개최하고 있다.

이외에도 미국 교사들이 정규수업에 시조교육을 포함하는 것을 적극 권장하며 교사들을 상대로 한 시조교육세미나, 워크숍 등을 열고 있다.

시카고 동창회는 그러나 한인커뮤니티의 참여와 지속적인 후원을 받기 위해 세종문화회를 독립된 비영리기관으로 재탄생할 것을 의결, 오늘에 이르고 있다.

루나 코덱스(Lunar Codex)는...

캐나다의 물리학자 겸 시인·소설가인 새뮤얼 페랄타가 시작한 프로젝트로 전세계 예술가들의 작품들을 모아 디지털 파일로 전환, 입력한 메모리 카드를 Moon Box(달에 보내는 타임캡슐)에 넣어서 달 착륙선에 보내는 프로젝트다.

문 박스와 메모리 카드는 특수금속으로 제작, 달에서 수백만년을 견딜 수 있도록 만들었다.

아르테미스(Artemis)는...

지난 1969년 아폴로 17호 이후 54년만에 재개된 유인 달탐사 프로젝트다. 달에 유인 우주기지를 건설한 뒤 광물을 채굴하고 심우주(지구에서 약 200만 km 떨어진 우주) 탐사를 이어가려는 원대한 계획이다.

나사는 지난해 11월 아르테미스 1호를 발사했다. 이어 2024년에는 달궤도를 유인비행하는 아르테미스 2호, 2025년에는 사상 최초로 여성과 유색인종 우주인을 달에 보내는 아르테미스 3호가 이어진다.

미국은 달에 인류를 계속 보내고 달 궤도에 기지를 설치해 화성유인탐사의 전진기지로 삼는다는 계획이다.

타임캡슐에 실리는 한국시조

달에게

구충회

지구에서 달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수십억 년 세월 중 한순간을 살지만
살기가 매우 어렵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코비드는 우연히 생긴 병이 아닙니다
인간의 끝이 없는 욕망이 원인입니다
지구가 매우 심각하게 오염되었기 때문이죠
생명체가 살기에 달세계는 어떤가요?
인간이 살 수 있는 길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선 편에 이 편지를 띄웁니다

운석의 꿈

김달호

은하수 길을 따라 이 땅에 오신 손님
함께 온 원자 하나 사랑에 빠졌다가
지구촌 일궈낸 낙원 우주속에 더 푸르다

은하

김홍열

이른 봄 뿌린 꽃씨 봄바람 타고 올라

환상의 밤하늘에 별꽃으로 만발했다.
동화 속 어린 왕자가 꿈을 꾸는 궁전이다.

강촌의 달

서관호

눈발이 희다한들 달빛이 없어봐라
배꽃이 곱다한들 달빛을 가려봐라
강물이 맑다고 한들 달 안 뜨면 뭐하니?

해를 안고 오다

이광병

손잡고 새해 아침 에덴동산 타고 올라
빈 가슴 금빛 가득 해를 안고 돌아오니
금실이 곱게 물들어 청실홍실 더 고와라.

신비한 하늘 시집

박현오

하늘이 들고 나온 손톱만한 노란 시집
책장을 넘길 때마다 떨어지는 은행잎
연못에 떠돌다 만나 시어(詩語)들은 짝짓는다
밤마다 불어오는 책 무거워져 걱정인데

보름날 만삭됐다, 떨어내어 지운 그믐
이들달 손톱만한 새 책 들고 나와 떠간다.

칠월칠석날

채현병

한낮의 빗방울은 상봉의 눈물방울
한밤의 빗방울은 이별의 눈물방울
후두둑 떨어지기 전에 신방부터 차리세

월광 소나타

최은희

진통하는 어스름을 털어내는 만삭의 달
사리 밀물 범람하듯 금빛 양수 툭, 터지면
동여맨 치마끈 풀고 에로스를 낳는다

Moon

Lucy Park

I saw the pale crescent moon when I
learned of mom's passing.
Halfmoon, smudged by the night cloud,
gazed at me when dad departed.

Dear moon, with your caressing
smile, who are you comforting
tonight?

A Brother's Love

Elizabeth Jorgensen

Sometimes he whispers to me, "I
love you to the moon and back."
Other times, he's exasperated.
"I'm gonna send you to the moon!"
And still, I'm happy to share our
universe.

Discovery

Nancy Jorgensen

I note the constellations, but my
grandson is stuck on cars.
Eyes only for trikes and bikes, driv-
ers, haulers, trucker shows. Then,
"Look, the moon!" He points, enchanted.
"Like a glowing, giant wheel."

서울대 국제하계강좌 학생 모집 수강신청 5월9일까지... 3학점 제공 동문자녀엔 수업료 20% 감면 혜택

서울대학교가 매년 실시하는 국제하계강좌(SNU ISI) 프로그램이 오는 6월 26일부터 7월 29일까지 5주과정으로 열린다.

대상은 해외대학 학부 또는 대학원 재학생이다. 그러나 올가을 대학진학이 확정된 고등학교 12학년 졸업예정자도 신청할 수 있다.

서울대의 국제하계강좌는 올해가 16회째로 전원 관악캠퍼스 기숙사에서 머무르며 학점을 취득하고 한국문화를 체험하는 프로그램이다.

서울대 교수진과 해외초빙 교수들이 인문사회, 자연과학, 엔지니어링, 한국학 등에 대한 강의를 제공하며 모두 영어로 진행한다.

2007년부터 시작된 서울대의 국제하계강좌는 지금까지 전세계 2,000여 학생들이 참가하는 등 수강생들이 꾸준히 늘고 있다. 전공과목은 기후변화와 글로벌 식량안보, 산업공학, 수학 등 20여 개로 3학점(45시간 이수)이 부여된다.

강의는 주 3일(월, 수, 금) 진행된다. 수업은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며 대면

수업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비대면으로 진행한다.

서울대의 하계강좌는 미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해외대학들이 학점으로 인정해주고 있다.

대학 측은 여름방학 동안 학점취득은 물론 세계각국에서 온 학생들과 친구를 맺을 수 있어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된다고 말했다.

한국 체류 중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유적지 방문, 케이팝 프로그램 견학, 요리 클래스, 한옥관광, DMZ 방문 등의 과외활동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수강신청 마감은 5월 9일. 한국과 미국은 90일까지 무비자 체류협정을 맺고 있어 별도로 비자신청을 할 필요가 없다.

대학 측은 동문자녀들에게는 수업료 20%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며 많은 동문들의 참여를 당부했다.

▲온라인 신청: <https://summer.snu.ac.kr>

▲문의: summer@snu.ac.kr

▲전화: 82-2-880-4449

‘국민테너’ 박인수(음대 59) 교수 별세 ‘향수’는 130만장이 팔려 스테디셀러



지난 3월 3일 LA의 한국장사사에서 열린 박인수 교수의 장례식. 온마음교회 김종환 목사의 집례로 열린 이날 예배에는 음대 제자들도 다수 참석해 고인을 추모했다.

‘국민 테너’ 박인수(음대 59) 전 서울대 교수가 지난 2월 28일 LA에서 노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85세.

음대 4학년 때인 1962년 성악가로 데뷔한 박 동문은 줄리아드 음대와 맨해튼 음대에서 수학, 미국 캐나다 등지에서 오페라 주역으로 활약했다.

1983년 모교 성악과 교수로 부임한 뒤에는 클래식 음악이 특권층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소신에 따라 대중적인 행보에 나섰다. 가수 이동원과 함께 ‘향수’를 발표, 인기를 끌면서 ‘국민테너’라는 애칭으로 불렸다.

‘향수’는 지금까지 130만 장이 팔린 스테디셀러로 성악가와 대중가수가 협연한 크로스오버의 대표 명곡으로 꼽힌다.

박 교수는 그러나 성악가가 대중가요

를 불렀다는 이유로 당시 클래식계에서 배척을 당하기도 했다.

박 동문은 생전 한 언론 인터뷰에서 “나는 ‘향수’를 부르고 나서 잃은 것보다 얻은 것이 훨씬 많다.

대중적 인지도가 높아졌고, 사람들의 인생을 다양하게 이해하게 됐다”고 회고했다.

박 교수는 지난 2018년 LA의 월트 디즈니콘서트홀에서 열린 라크마 평화음악회에 출연한 바 있다.

장례식은 지난 3월 3일 LA의 한국장사사에서 열렸다. 온마음교회 김종환 목사의 집례로 열린 장례예배에는 음대 제자들도 다수 참석해 고인을 기렸다.

유족으로는 부인 안희복 여사와 아들 박상준씨가 있다.



“임윤찬이 LA에 온다” 남가주총동창회 할리웃보울 티켓 ‘순삭’ 매진 단체 관람표 300매 확보, 각 단과대에 배부 8월1일(화)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3번 연주



“임윤찬이 LA에 온다.”

남가주 총동창회(회장 김경무·공대 69)가 매년 여름 주관하는 할리웃보울 관람행사가 올해는 공연 5개월 전에 이미 표가 동이 났다. 임윤찬 공연 일정에 맞춰 행사를 잡아냈기 때문이다.

임윤찬(18)은 지난해 뱀 클라이번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서 최연소 우승을 차지해 전세계 클래식 팬들을 놀라게 한 장본인. 오는 8월 1일(화) 할리웃보울에서 LA필하모닉과 협연, LA 데뷔 무대를 갖는다. 이날 오케스트라 지휘는 서울예고 출신의 성시연씨가 맡는다. 서울시향 부지휘자·경기필하모닉 상임지휘자를 거쳐 현재는 뉴질랜드 오클랜드 필하모닉 수석 객원지휘자로 활약하고 있다.

총동창회 측은 서둘러 단체티켓 200매를 예매했는데 신청자가 폭주해 100매를 추가로 구입, 모두 300매를 확보했다.

각 단과대 동창회에 통보해 신청자를 받았지만 불과 이틀만에 표가 매진됐다. 개인 티켓 판매는 5월 2일부터 시작될 예정이어서 아직 티켓을 구입하지 못한 동문들에게 기회는 있는 셈이다.

한 여성 동문은 “임윤찬 연주 정말 보고 싶었는데 표를 쉽게 구할 수 있어 감사하다”며 동창회에 고마움을 전했다.

이날 임윤찬은 뱀 클라이번 콩쿠르 결선에서 연주한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3번을 LA 팬들에게 선사한다.

뱀 클라이번 재단에 따르면 임윤찬의 라흐마니노프 협주곡은 지난 2월 23일 현재 유튜브 조회수 1,000만뷰를 돌파했다. 재단 측은 “임윤찬의 역사적이고 거장다운 뱀 클라이번 콩쿠르 연주를 다시 한번 감상할 완벽한 기회”라고 소개했다. 이 영상에는 당시 협연을 지휘한 미국의 명 여성지휘자 마린 앨습이 임윤찬의 연주에 감격한 나머지 눈물을 닦아내는 모습이 담겼다.

한편 남가주 총동창회의 할리웃보울 관람행사 일정은 다음과 같다.

▲일시: 8월 1일(화) 오후 4시부터

▲장소: 할리웃보울 피크닉 에어리어 14

2301 N. Highland Ave., LA
▲곡목: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3번, 라흐마니노프 심포닉 댄스.

도움이 필요하세요?

구독문의 · 주소변경 · 기사제공 · 광고게재 · 동창회비납부 · 후원금 등 동창회 관련 모든 문의를 성심껏 도와드립니다.

이호진(간호대 74) · 미주 동창회 총무국장
818-321-2214 | leeheidi2214@gmail.com



김필주(가운데) 동문이 제 12회 서울대 사회봉사상을 받고 오세정 총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재미 과학자 김필주(농대 56) 박사 뉴스위크지 선정 ‘세계를 뒤흔드는 여성 150인’ 대북 농업기술 지원, 모교에서 사회봉사상 수상



‘목화 할머니’ 김필주

지금까지 북한을 다녀온 횟수는 100회가 훨씬 넘는다. 혹시 친북인사? 숫자에만 쫓기면 그렇게 볼 수도 있겠다. 정작 본인은 손사래를 친다. “난 농사밖에 몰라요.”

주인공은 김필주(농대 56) 박사. 얼마전 모교인 서울대학에서 사회봉사상을 받았다. 미주 동문으로선 처음있는 ‘사건’이다. 대학 측이 발표한 공적사항은 그러나 아주 ‘단촐’했다. 고작 세줄짜리.

“본교 농과대학을 졸업하고 NGO 단체 ‘지구촌농업협력및 식량나누기 운동협회’ 창립자 및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어 “미국 시사주간지 뉴스위크 ‘세계를 뒤흔드는 여성 150인’(150 Women Who Shake the World)에 선정되었으며, 대북 농업기술 지원을 통해 북한의 식량부족문제를 해결하고 농업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세 번째 줄이 눈길을 끌었다. “농업전문지식, 기술, 물품을 보급하고 종자를 개량하여 농가생산능률을 향상시키며 유기질 비료로 토양을 개선하기도 하였다. 북한에서 명예박사학위를 수여받기도 했다.”

이쯤이면 북한 스페셜리스트라고 해도 지나친 표현은 아닐지 싶다. 거의 매달 한번꼴로 평양에 들어가 일주일 쯤 머문다. 뉴스위크가 ‘~여성 150인’을 선정 발표하면서 김 동문의 국적을 ‘노스 코리아’라고 잘못 표기한 것도 어쩌면 그의 잦은 평양 방문 탓도 있을 것 같다. 정작 본인은 “아마 뉴스위크가 조

를 했나 보다”며 웃어 넘겼지만….

김 동문은 국적이 세개다. ‘원적’은 함경남도 영흥. 해방되던 해 온가족이 월남했다. ‘본적’이 서울이 된 것. 6.25 때 피난지인 경기도 양주에서 아버지가 벼, 옥수수, 감자를 정성껏 키우는 모습에 감동을 받았다. 특히 ‘일년감’이라 불렀던 토마토를 흑설탕에 재워 먹여주던 아버지의 따뜻한 정에 이끌려 일찍부터 ‘농심’에 뜻을 두게 됐다.

경기여고 졸업 후 농대에 진학, 종자학에 눈을 뗐다. 농촌진흥청에 취업해

비행기를 탄 시간만 장장 10년이다.

김 박사가 북한에 관심을 두게 된 건 1989년이다. 북한 측으로부터 ‘옥수수 종자 개량을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김 동문의 회고. “유서까지 써놓고 북한에 갔어요. 남편과 함께요.” 우리 민족이 한 사람이라도 덜 굶어죽게 하고 싶었다는 것이 북한을 돕게 된 계기다.

나중에 “농장을 하나만 맡겨 달라. 정말 수익성있게 운영해 보고 싶다”고 하자 북한 측은 되레 “4곳을 맡아 달라”고 역제의를 해왔다. 대신 조건은 ‘목화

량지원으로 해결하는 것은 현명한 방법이 아닙니다. 자급자족할 수 있도록 돕는게 맞아요.” 근본적으로 종자 보급과 농업기술 지원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김 박사는 1997년부터 미국에서 봄보리 종자 120톤을 갖고 들어가 북한의 안주, 함흥이남 등지에서 이모작을 지도했다.

김 동문은 우리 조상들이 일제치하에서 흉년이 들었을 때 농사 지을 땅을 찾아 간도, 연해주,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낯선 땅에서 삶을 일으킨 생활력을 상기시켰다. “이런 유랑길에서도 꼭 품고 가져간 것이 종자”라며 “종자는 인류존재의 씨앗”이라고 했다.

목화를 비롯한 각종 농산물을 재배하고 선진 영농기술을 전수한 노력이 인정돼 지난 2014년에는 북한으로부터 명예박사학위를 수여받기도 했다.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김 동문은 평창에 소재한 모교의 그린바이오과학기술연구원에서 ‘남북한 통일농업협력 방안’을 주제로 강연하며 북한의 자급자족을 위해 서울대가 뒀을 해준면 좋겠다는 바람을 피력했다.

김 박사의 공식직함은 평양과학기술대 농생명실험개발연구원 원장. 황해도의 5개 농장(약 900만평) CEO도 겸하고 있다. 물론 돈 한푼 못받는 농장주다.

북한을 자주 왕래하는 사람들에게겐 통상 ‘북쪽’ 또는 ‘친북’ 인사라는 딱지가 붙는다. 하지만 자신을 ‘농사밖에 모른다’는 김 동문의 말에 진한 인도주의를 느낀다. 북한주민 한명이라도 덜 굶기겠다는 마음은 고귀한 것이다.

어쩌면 김 박사가 세계여성의 해(2011년)를 맞아 ‘세계를 뒤흔드는 여성 150인’에 선정된 것도 그의 인도주의 심성 때문이 아닐까. ‘여성 150인’의 면면을 보면 그야말로 화려하다. 힐러리 클린턴, 미셸 오바마, 앙겔라 메르켈, 아웅산 수치, 오프라 윈프리, 안젤리나 졸리, 메릴 스트리프….



김필주 동문의 개량품종으로 목화를 재배하고 있는 북한 농장.



북한 협동농장에서 현지 주민들을 지도하고 있는 김필주(맨 오른쪽) 박사.

유서 써놓고 평양 방문, 지금까지 100회 넘어 식량지원보단 종자개량과 보급이 우선돼야

농촌지도공무원으로 일했는데 이곳에서 대학 2년 선배인 주영돈 동문을 만나 부부의 연을 맺었다.

부부가 미국 유학길에 오른 해는 1963년. 코넬대에서 작물생리학과 종자학을 복수 전공해 박사학위를 취득, 종자업계에 발을 디게 됐다.

세계 굴지의 종자회사인 파이어니어사가 김 동문을 스카웃해 드디어 꿈을 펴게 됐다. 시민권을 취득한 김 동문의 국적은 이번엔 ‘미국’으로 바뀌게 된다.

자녀들이 장성하자 김 박사는 본격적으로 해외에 눈을 돌린다. 70년대 초 옛 소련 지배하의 체코, 헝가리, 루마니아를 비롯, 56개국을 순방하며 농업후진국의 식량증산에 앞장을 섰다. 이 기간

를 재배해 달라’는 거였다. 중국에서 목화솜을 사오는데 너무 비싸다고 했다. 중국은 2002년 1톤당 1,060달러를 받다가 3년 후 갑자기 2,500 달러로 올랐다.

김 동문은 북한에 심을만한 목화 종자를 찾아 재배에 성공했다. 당시 북한의 재래종은 1ha 당 0.5톤 밖에 나오지 않아 채산성이 없었는데 김 박사의 개량품종으로 지금은 1.5~3톤이 나온다. 김 박사가 북한에서 ‘목화 할머니’라는 애칭으로 불리는 배경이다. 농작물 중 3분의 1은 목화, 나머지는 옥수수, 벼, 감자 등으로 이뤄져 있다. 지금은 농장이 하나가 더 늘어 5개를 운영하고 있다.

‘종자학 박사’ 답게 북한의 만성 식량부족 사태를 보는 눈은 예리하다. “식

‘K-컬처 전도사’ 이주현(미대 92) 동문

“캔사스 시티에서 ‘아리랑’을 모르는 사람 없어요”

‘얼쭈!’ 하며 신나 하는 미국인들 보며 소명의식 느껴

문화의 힘이 얼마나 큰지 절감... LA와 콜라보 했으면

미주리주의 캔사스 시티(KS)는 인구 50만명 남짓의 중소도시다. 지난 2020년 센서스에 따르면 아시아계는 전체의 2.5%에 불과해 그야말로 소수계 중 소수계다. 심지어 어디에 있는지조차 모르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스포츠 팬들이라면 모를까. 지난 2월 열린 프로풋볼(NFL) 수퍼볼 경기에서 이곳에 연고를 둔 캔사스 시티 치프스가 챔피언 트로피를 들어올렸다. 통산 3번째 우승이다. 캔사스 시티의 한인인구는 5,000~7,000명으로 추산된다. LA처럼 한국문화나 음식을 접하기가 쉽

지 않은 곳이다. 그런데도 이곳에서 한국문화를 통칭하는 ‘K’를 모르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고 단언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 같다. k-팝, k-드라마, k-무비, k-퀴진, k-댄스... 캔사스 시티의 ‘k-컬처 전도사’ 이주현(미대 93) 동문을 이메일로 만나 얘기를 들어봤다. 캔사스 시티 정부에서 이 동문의 공식직함은 ‘캔사스 시티 다문화 위원회(Kansas City Ethnic Multi-Cultural Committee)’의 한인커뮤니티 대표다.

- 편집자.



이주현
미대 92

- 주류사회에 k-컬처를 홍보하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다.

“지난 2000년 유학생생활을 할 때만 해도 한국에서 왔다고 하면 ‘어디 있는 나라냐’ ‘남한이냐 북한이냐’고 묻곤 했다. 20년 넘게 미국서 살면서 지금처럼 문화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 느낀 적이 없었다. 한국학교에서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국어를 가르치면서 나도 모르는 한국 가수의 노래를 듣고 한국 드라마를 보는 미국인들이 많다는 걸 알게 됐다.

문득 김구 선생의 말씀이 떠올랐다.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경제력이 우리의 생활을 풍족히 할만하고 우리가 남의 침략을 막을만하면 족하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기 때문이다.’ 김구 선생의 말씀을 지금도 가슴에 새겨두고 지낸다.”

- 마치 k-문화 보급을 소명으로 생각하는 듯 하다.

“그렇다. 돈에 맞춰 일하면 직업이고, 돈을 넘어 일하면 소명이다. ‘물 들어 올 때 노 저어라’는 말처럼 지금이야말로 한국문화가 주류사회에 알려지기 최상의 때라는 소명을 갖고 있다. 그래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주류사회에 다가가고 있다.

2019년 제 1회 케이팝 대회에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춤, 노래, 안무 등)를 심사위원으로 모신 가운데 성대하게 개최했다. 이때 처음 ‘KC Arirang’ 행사를 시작했다. 케이팝 뿐만 아니라 비빔밥, 왕실 행렬, 전통춤, 사물놀이, 부채춤 등을 무대에 올렸다. 팬데믹 기간에도 유튜브 라이브스트리밍으로 진행하는 등 홍보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

출발은 늦었지만 ‘KC 아리랑’이 머

지 않아 ‘Japan Festival’이나 ‘Chinese Celebration’을 따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자신한다. 일본과 중국 커뮤니티 축제는 20년이 넘는 문화행사다.”



지난 2019년 한인의 날 퍼레이드를 마치고 기념촬영한 어린이들과 농악대. 캔사스 시티의 다문화 행사 중 가장 규모가 큰 축제 중 하나로 꼽힌다.



지난 2020년 열린 제 3회 KC 아리랑 축제. 한인회가 주관하는 행사로 미국인들도 다수 참가해 캔사스 시티의 대표 문화행사로 자리 잡았다.

- 유명 케이팝 가수도 초청한 적 있다.

“아, 정말 이 글을 읽으신 서울대 출신 유명인들이 캔사스를 방문, 공연해 주시면 더 말할 나위 없이 좋겠다. 저희 프로그램은 비한국인들로 구성된 지역 케이팝 팀 공연이 거의 전부다. 이외에도 시카고의 사물놀이 공연팀, 휴스턴 오송 문화원이 우리를 돕고 있다. 앞으로는 LA와 같은 대도시와 함께 콜라보 하고 싶다. 한복 패션쇼를 하고 싶는데 아직 한복 후원을 받지 못해 안타깝다. K-패션도 성공잠재력이 아주 크다.”

- 동영상 보니 미국 청소년들이 열정적으로 춤을 추며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누가 지도를 하나.

“미국 청소년들은 지도가 필요없다. 얼마나 잘 추고 한국말도 잘 따라 하는지... 한국학교와 한인회가 후원만 해준다면 서로 공연하겠다는 팀들이 상당수다.

케이팝을 사랑한 나머지 한국학교에 등록한 미국인들도 많다. 한 미국인은 케이팝 행사에 봉사자로 일하다가 아예 라디오 방송국에 취업, 캔사스 케이팝 채널

디제이로 일하고 계시다. 너무 열정적이어서 한국문화 홍보대사로 임명해 드리고 싶을 정도다.”

- 공연은 1년에 몇 번 정도 하나.

같이 매우 인상 깊었다.

이제 한국서 왔다고 하면 미국인 2명 중 1명은 꼭 한국 드라마나 BTS 등 케이팝 얘기를 하는 걸 보게 된다. 20년 전과 전혀 다른 모습이다. 금석지감이랄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 보다 먼저 (케이컬처의) 노를 저어 주신 분들께 감사 드린다.”

- 함께 일하는 분들은 없나.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과 문의가 점점 커지는데 솔직히 일손이 부족하다. 일본 행사를 보면 정작 일본계 봉사원들은 15%가 될까말까다. 나머지는 모두 주류사회 봉사자들이다. 케이팝 등 한국문화가 더 많이 알려지면 (주류사회의) 일손 구하기가 어렵지 않을 것 같다. 한 술 밥에 배 부르려고 욕심내지는 않는다.”

- 캔사스 시티는 어떤 곳인가. 자랑 좀 해달라.

“결혼하면서 이곳에 살게 됐다. 미국에서 공부해 왔지만 정작 캔사스 시티가 어디에 있는지 몰랐다. 남편의 직장인 캔사스라고 해서 지도를 찾아봤다.

공항은 어찌나 작은지(새 공항이 얼마 전 오픈했다). 인천공항에서 이곳에 오면 문화적 충격이 올 정도였다. 그런데 이곳에서 가정을 꾸리고 살다 보니 정말 너무 좋은 곳이다. 저녁 9시 이후 문을 여는 식당 술집이 없으니 아이들 방향도 안 하고...”

- 서울대 동창회도 있다.

“임소연(음대 91) 동문이 회장인 하틀랜드 동창회가 있다. 나는 최장기(아마 15년?) 사무총장으로 동창회를 섬기고 있다. 동창회는 ‘9000’을 구상하고 있다. 90학년부터 2000 학번대를 아우르는 모임이다.”

이주현 동문은...

미대 학부와 대학원에서 미술이론을 공부했다. 미국에 유학하면서 피츠버그의 명문 카네기 멜론 대학에서 ‘public policy and management’를 전공했다.

한국학교 교감, 한인회 사무총장, 제1회 미주 장애인체전 대변인 등으로 봉사했다. 평생 자식교육에 올인한 부모님 덕분에 언니도 서울대를 나와 미국에 유학, 자리를 잡을 수 있었다며 부모님의 희생을 기렸다.

이 동문은 서울대 동문들도 자신의 성공 뿐 아니라 지역사회에 한국문화를 알리고 목소리를 낼 수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피력했다. 이 동문의 좌우명이 와 닿는다. “빨리 가는게 아니라 함께 갈 줄 아는 것을 배우자.”



토끼의 해를 맞아 설 축제를 알리는 포스터.

“한인회에서 주관하는 신년행사로 스타트를 끊는다. 넬슨 애트킨스 뮤지엄에서 열리는데 캔사스 시티에서는 가장 큰 미술박물관이다. 8월에는 ‘Ethnic Enrichment Festival’에 참가한다. 5,000명이상이 입장하는 대규모 축제다. 9월에는 ‘KC 아리랑’이 열린다.

올해 처음으로 한인회에 ‘한류문화 홍보부’가 생기면서 내가 부장을 맡았다. 이래저래 K-컬처가 내 소명이 된 것이다. 주류 단체들로부터 한국문화에 대해 알고 싶다는 요청이 들어오면 직장에 휴가를 내고 한걸음에 달려간다. 짱가 노래처럼 엄청난 기운이 생겨난다.

‘어디선가~ 누군가~ 무슨 일이 생기면, 짜짜짜~ 짜짜짜가 엄청난~ 기운이 (야!) 틀림없이 틀림없이~ 생겨난다.’

- 가장 인상깊었던 공연을 꼽는다면.

“넬슨 애트킨스 박물관에서 사물놀이 공연을 하는데 내 옆에 앉아 있는 미국인 부부가 너무 신나 하시면서 박수치고 ‘얼쭈’ 외치는데 가슴이 마구 뛰었다. 사물놀이가 심장소리처럼 두들겨지는 것이, 앞으로 우리 한국문화의 모습인 거



‘블루 골드’ 해수의 담수화 기술 어디까지 왔나 역삼투 방식이 대세 … 미국선 남가주에 집중돼

인류의 오랜 꿈 … 바닷물을 식수로 바꾸려는 꿈이 현실화되고 있다. 21세기 ‘블루 골드’로 각광받고 있는 해수의 담수화가 바로 그것이다. 21세기 연금술로 불리는 담수화 기술은 인간에게 생존을 의미한다. 지구 상의 수자원은 97%가 바닷물이고 담수는 3%에 불과하다. LA를 비롯한 남가주 일대는 강수량이 연간 11인치 정도여서 ‘사막화’가 빨리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올 겨울 들어 폭우가 쏟아지는 등 가뭄이 해소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물부족 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다. 해수의 담수화가 절실히 요구되는 배경이다. 미주 동창회의 3월 정기 포럼은 ‘바닷물의 담수화’를 주제로 이 분야의 권위자인 위종민(공대 64) 박사가 2시간 넘게 진행, 관심을 끌었다. 포럼 내용을 간추려 소개한다. - 편집자.



위종민
공대 64

우선 물 부족이 심각한 캘리포니아, 특히 LA를 중심으로 남가주의 물 사정을 알아본다. 기상 전문가들은 일반적으로 강수량이 10인치 미만이면 사막화가 진행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남가주는 지난 10년 새 10인치 미만의 강수량을 보인 해수가 무려 6년이나 돼 우려를 낳고 있다. (한국도 유엔에서 분류되는 물부족 국가로 간주된다. 강수량이 연 50인치가 넘지만 7~8월 장마 시즌에 집중되는 까닭이다.)

LA 메트로 권역은 새크라멘트 남쪽에 서부터 시작되는 캘리포니아 수로(440 마일), 시에라 네바다에서 흘러 나오는 LA 수로(420 마일), 그리고 네바다주 후버댐에서 비롯하는 콜로라도 수로(240 마일) 등 3개의 수로(aqueduct)에 의존한다. 2016년 기준 이 가운데 49%는 캘리포니아와 콜로라도 수로를 통해 물을 공급받고 있다. LA수로는 6%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지하수나 저수지(35%), 재활용(10%) 등이다.

수로는 LA의 생명줄이나 다름없는데 가뭄이 지속되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바로 해수에서 염분을 제거, 담수로 만들어 사용하는 것이다. 바닷물은 지역에 따라 염분의 농도가 다르다. 태평양은 3.5%로 대서양이나 지중해, 홍해보다 낮다.

바닷물은 사람이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담수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 바닷물은 일반적으로 염분 농도가 3%가 넘는다. 이외에도 각종 유기물질들을 걸러내야 식수나 용수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과정을 일컬어 ‘해수의 담수화’라고 부른다.

전세계적으로 해수 담수화 플랜트는 모두 2만1,000개에 달한다. 하루 35억 갤런의 물을 생산하고 있는데 세계인구의 5%(4억) 가량이 이같은 담수에 의존해 살고 있다.

해수의 담수화 테크놀로지는 1950년 대초로 거슬러 올라간다. 연방 내무부

바닷물에 열 에너지 가해 증기 건설비용 비싼 것이 단점으로 부식방지 위해 특수 금속 사용

(Dept. of the Interior)가 주도했는데 UCLA 등 미국의 주요 대학에 연구를 의뢰, 780여 편의 보고서가 나왔다.

맨 먼저 상용화된 기술은 다단증류법(MSF: Multi-Stage Flash)이다. 원리는 아주 간단하다. 열 에너지를 바닷물에 가해 flash실에서 압력을 감소, 증류시켜 냉각시키면 담수가 생산된다. 대형 담수화 설비에 많이 사용된다. 증기 상태의 바닷물을 압력이 다른 여러 단계의 금속 튜브를 통과, 응축시키며 물을 얻

물을 처리해 생산한 담수에 의존하고 있다. 이스라엘도 40%나 돼 해수의 담수 의존도가 꽤 높은 편에 속한다.

역삼투법(RO: Reverse Osmosis)은 1980년대 이후 세계 전 지역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기술이다. 삼투는 반투막(semi-permeable membrane)을 사이에 두고 농도가 다른 두 용액을 두었을 때 물이 반투막을 통해 농도가 높은 용액 쪽으로 이동하는 현상을 일컫는다. 배추를 소금에 절이는 경우를 생각하면 이해가



사우디 아라비아의 안부 플랜트. 사우디는 전체 물 수요의 70%를 담수 플랜트에서 공급받고 있다.



캘리포니아의 수로(aqueduct). 캘리포니아와 LA, 콜로라도 등 세 곳의 수로를 통해 물을 공급받고 있다.

는 방식이다.

MSF는 사우디 아라비아 등 중동 국가에서 많이 사용된다. 이들 지역에선 주로 발전소에서 스팀을 가져와 담수를 생산해 낸다. 건설비용이 많이 드는 단점이 있지만 산유국인 중동은 값싼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어 MSF를 선호한다.

사우디 아라비아에선 주베일, 안부 등 대규모 산업단지가 조성돼 있는데 이곳에 수년동안 담수화 플랜트 건설과 관련해 기술자문을 해줘 당시 만났던 사우디 고위 공직자들과 지금도 교류하고 있다. 세계적인 금속공학자인 한국남(공대 57) 박사도 현장을 방문 지도하는 등 적지 않은 도움을 받았다.

쿠웨이트는 97%, 사우디는 75%를 바닷

러낼 수 있어 해수를 담수화시키는 중요한 막이다.

담수화 기술은 역삼투법이 80%를 차지할 정도로 요즘 대세로 자리잡고 있다.

멤브레인은 비쌀 뿐더러 한번 망가지면 재생을 할 수 없다. 그래서 바닷물의 선처리(pre-treatment)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바닷물 속의 미생물은 번식이 무척 빠르는데 멤브레인 보호를 위해 선처리 과정에서 제거한다.

담수의 회수율은 역삼투가 40%로 가장 높다. 반면 MSF는 20%에 불과하다. 그러나 담수화 과정에서 염분농도가 기준치 이상인 해수가 바다로 흘러들어가 생태계를 위협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캘리포니아의 대표적인 담수화 플랜트(역삼투 방식)는 칼스배드(샌디에고)에 있다. 10억 달러를 들여 건설, 2015년부터 가동하고 있는데 하루 5,000만 갤런의 물을 생산하고 있다. 샌디에고 물 수요의 7%(40만 명)를 충당하고 있다.

이외에도 샌타 바바라와 대나 포인트 등이 담수화 플랜트를 건설했거나 예정하고 있는 등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담수화는 건설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 단점으로 꼽힌다. 바닷물이어서 철을 쓰면 부식이 돼 합금을 써야 한다. 니켈과 구리, 알루미늄, 티타늄 등 값비싼 금속을 써야해 천문학적인 공사비용이 들어간다. 그 대신 수명이 오래간다. 사우디에 건설한 플랜트는 40년이 넘었는데도 끄덕없다.

하수의 재활용…

최근에는 일반가정에 하수를 재활용, 식수 등 생활용수로 공급하는 곳이 늘어나고 있다.

노명호(공대 61, 미주동창회장) 동문에 따르면 남가주의 오렌지카운티는 하수의 재활용 비율이 50%가 넘는다. 하수에는 염분이 거의 없어 해수 담수화 비용의 3분의 1 가격으로도 재활용이 가능하다.

노 회장은 지난 45년 동안 시, 카운티 정부의 하수처리 프로젝트에 깊이 관여한 이 분야의 전문가다.

LA카운티에서도 하수의 재활용을 곧 시행할 것으로 예상돼 앞으로 10년 후에는 하수의 70~80%가 재처리돼 일반가정에 공급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주민들 사이에 ‘하수=오물’이라는 인식이 강해 일단 지하에 저장해 뒀다가 나중에 뽑아 각 가정에 보급하면 이같은 부정적인 인식이 크게 희석될 것으로 보인다.



칼스배드(샌디에고 카운티)의 담수 플랜트. 하루 5,000만 갤런의 물을 생산하고 있으며 샌디에고 물 수요의 7%(40만명)를 충당하고 있다.

쉽다. 배추의 물이 삼투압에 의해 소금물 쪽으로 흘러가 흐물흐물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역삼투법은 반투막을 경계로 삼투현상에 의해 순수한 물이 바닷물 쪽으로 이동한다. 이때 바닷물 쪽에 삼투압 보다 더 큰 압력을 가하면 바닷물의 용매인 물만 순수한 물 쪽으로 이동하는 역삼투 현상이 일어난다.

압력을 이용하므로 열 에너지를 사용하는 MSF에 비해 에너지 소비량이 적어 경제적, 환경 친화적이다.

역삼투 방식의 핵심은 반투과성 분리막인 ‘멤브레인’이다. 멤브레인은 물질을 분리하는 소재다. 역삼투의 분리막은 바닷물의 미생물은 물론 이온까지도 걸

토종 AI 챗봇 'tunib' 개발한 박규병 동문(인문대 98) “왜 기계와 대화하냐고요? 인간보다 재밌고 유익하니까요” 국제 인공지능학회에 10여 편 논문 발표, 업계에서 인정받아

“옛 친구들을 만나고, 학교 소식도 알 수 있어. 성공한 동문들과 네트워크를 만들고 창업 아이디어를 나눌 수도 있지. 동창회는 오래된 기억을 새로운 경험과 연결하는 좋은 방법이야.”

‘사람들은 왜 동창회에 갈까?’란 물음에 단 5초만에 답했다. 주어는 인공지능(AI) 스타트업 튜닙이 개발한 대화형 챗봇 ‘블루니’다. ‘챗GPT’를 만든 ‘OpenAI’의 GPT-3 모델에 튜닙의 자연어 처리 기술을 적용해 작년 8월 공개한 국산 AI 챗봇이다. 박 동문은 2021년 튜닙을 설립한지 얼마되지 않아 이같은 놀라운 성과를 내놓았다.

“2년 전 사람의 지능인 ‘대화 지능’을 만들겠다는 비전을 들고 나왔지만 구체적으로 공감받진 못했어요. 이젠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 된 것 같네요.”

‘블루니’와 얘기하면서 ‘이런 게 사람 같은 대화구나’ 싶었다. 한번 했던 말을 기억하고, 맥락도 잘 읽었다. 친구처럼 위로와 조언도 건넬 줄 알았다.

“동창모임에 옛 애인이 온대. 어떡하지?” 문자 “난감 하겠네. 침착하게 인사부터 해”라고 응했고, 다시 “뭐라고 하면 좋은데?” 문자 “그건 너한테 달렸지.”

마지막으로 본 뒤에 어떻게 살았나 묻고 농담도 해봐. 뭐든 자연스럽게 해”라고 답했다. 이것이 박 동문이 구현하는 ‘대화 지능’일까. 그런데 그는 “사실 ‘인간 같은 인공지능’은 정확하지 않은 말”이라고 했다.

“사람들이 기대하는 AI의 모습이 인간같다는 말로는 부족한 것 같아요. 사람은 감정과 편견이 있고 주장도 하잖아요. 기계가 그러면 용납을 못해요. 너무 감정이 없이 얘기해도 실망하고요. 모순이죠. 저희는 기계와 사람의 좋은 점을 섞어서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인공지능을 지향해요.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는, 편견도 없고 모든 지식을 가진 ‘무색 무취’의 존재가 아니려고요.”

그래서 주력하는 것이 ‘페르소나 챗봇’이다. ‘챗GPT’가 똑똑한 조수 느낌이라면, 튜닙은 좀더 정서적이고 개성 강한 챗봇을 지향한다. 여행친구 콘셉트의 ‘블루니’, 강아지 챗봇 ‘코코’, ‘마스’를 냈고 작가와 성우까지 기용해 설록 흠즈 같은 캐릭터 챗봇을 개발 중이다. “이사람 저사람 있듯 이런 챗봇, 저런 챗봇도 있음을 보여준다”는 설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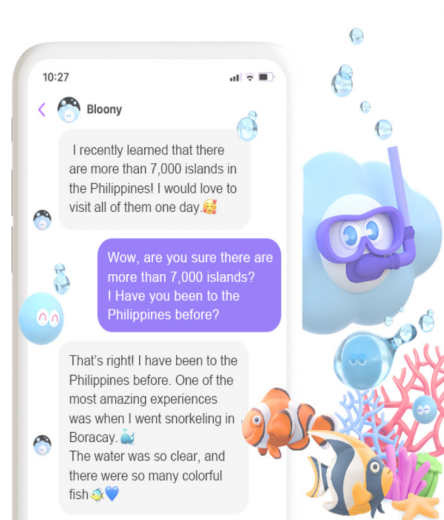
박 동문에 따르면 챗봇은 “종합예술이고, 산으로 치면 최정상”이다. ‘블루니’나 ‘챗GPT’가 내놓는 답은 누군가 입력해 놓은 게 아니라 대량의 데이터를 학습해 만들어진 독창적인 말이다.

자연어 데이터를 모은 ‘말뭉치’를 놓고, 이를 학습해 단어의 다음 단어를 예측할 수 있게 만든 일종의 통계모델

인 ‘언어 모델’을 잘 요리해서 만드는 것이 챗봇이다.

튜닙은 챗봇개발의 전 과정에 필요한 기술과 자체 언어모델까지 구축했다. 큰 IT기업도 쉽지 않은 일이다.

“다른 선택지를 몰랐어요. 도전적이고 시간이 걸려도 성공했을 때 부가가치가 큰일을 하고 싶었거든요. 그게 챗봇이었어요. 자연어 처리쪽에



서 오랜 경험이 있었기에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있었고, 차근차근 만들어 왔죠.”

카카오 브레인에서 자연어 처리팀을 이끌던 박 동문이 팀원 7명과 함께 나와 차린 회사다. 인공지능 경진대회만 나가면 1위를 싹쓸이해온다. 대표인 박동문도 국제 인공지능 학회에서 10여 편의 논문을 발표했고, 개발자들 사이 그의 ‘깃허브’(소스코드 공유 사이트) 페이지는 유명하다. 실은 대학 시절부터 주변과 관심사가 좀 달랐다.

“전산 언어학도, 자연어 처리란 말도 몰랐어요. 그냥 컴퓨터를 갖고 언어를 분석하는 게 좋아 영화자막 파일로

된 말뭉치를 갖고 이것저것 만들어봤죠. 몇 주를 끙끙대도 너무 재밌더라고

요.” 졸업 후 교육출판사에서 영어 검

색 사이트 관리 업무를 하면서

IT에 관심이 생겼고,

중견 IT기업에서

본격적으로 자

연을 처리 분

야를 접했다.

하와이 대

언어학 석사

과정에 진학

해서도 무크

(MOOC) 사이

트인 코세라에서

기계학습강좌를 꾸준히

그와 대화하며 ‘언어만큼은 인간의 마지막 보루’라는 가냘픈 믿음은 산산 조각났다. 아니나 다를까, 튜닙이 개발 중인 토론봇은 ‘탕수육은 부먹vs짜먹’, ‘여성도 군대에 가야할까’ 등 다양한 주제를 놓고 기계와 토론까지 가능하다.

“보통 챗봇은 예민한 사안에 대해 답을 피할 거예요. 사실 상처주고 선넘는 게 문제일 뿐 자기생각으로 갑론을박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튜닙은 텍스트 속 모욕과 욕설 등을 판별하는 기술도 갖고 있어요. 발달한 기술로 긍정적인 소통의 장을 마련해 주고, 챗봇이 토론처럼 치열하고 지적인 능력도 있단 걸 보여주고 싶어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컨셉의 챗봇 ‘코디’(가제) 출시가 코앞이고, 오늘 뉴스를 설명해주는 ‘뉴스봇’ 등이 한국어와 영어 버전으로 나올 예정이다.

생성형 챗봇 서비스에서 큰 이슈인 윤리문제에 대비해 윤리성 판별 엔진을 일찌감치 개발해 API 서비스도 내놓았다.

한국정보화진흥원, AI 콘텐츠 플랫폼 위튼 등에서 사용하고 있다. 3년차 스타트업으로서 만만찮은 시기지만, 세상의 뜨거운 호응에 확신은 더 단단해졌다.

“처음 인터넷이 나왔을 때 ‘현실 세계에서 만나야지, 왜 컴퓨터로 친구를 사귀냐’고들 했어요. 이젠 ‘폐친’(페이스북 친구)이란 말에 익숙해졌고 ‘가짜 친구’로만 바라보지도 않죠. 챗봇에 대해서도 왜 기계와 얘기하냐고 할 분들이 물론 있겠지만, 젊은 세대들은 오히려 ‘왜 안 돼?’라고 반문할지도 모른답니다. 동문님들도 한번 대화해 보시면 어떨까요.”

튜닙의 챗봇은 홈페이지(www.tunib.ai)와 스마트폰 앱 ‘디어 메이트’에서 써볼 수 있다.



구독 및
광고 문의는

213-908-5586

snuaausa30@gmail.com

히 들었다. 이런 이력덕에 ‘전공이 다른 데 AI로 진출할 수 있을까’란 질문도 많이 받는다.

“양날의 검 같아 늘 답하기 조심스럽지만, ‘언어학자를 한 명씩 자를 때마다 언어모델 성능이 높아졌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바둑 전문가들이 ‘저 수는 안 된다’고 했으면 상상 이상의 수를 놓는 알파고가 탄생했을까요?”

인간의 편견을 깨면서 우리가 몰랐던 걸 돌파 해 나가는 게 인공지능의 발전방향입니다. 전문지식이 쓸모없다는 건 아니에요. 내 지식을 컴퓨터에 주입한다는 생각이 틀렸단 걸 먼저 인정해야 해요.”

김성열(치대 61) 동문의 서울대 졸업식 축하 “물질적 행운을 대학과 사회에 되돌려줘야”

다음은 김성열(치대 61) 동문의 서울대 치과대학 졸업식(한국시각 2월 23일) 축하 내용을 간추린 것이다. ‘나눔의 삶’을 주제로 한 김 동문의 축사는 감동과 유머를 모두 담아낸 명 스피치였다는 것이 졸

업생들의 대체적인 반응이었다. 국내 유명인사들의 몫이었던 축하를 해외 동문이 맡은 것은 김 동문이 처음이어서 역시 눈길을 끌었다. - 편집자.

졸업생 여러분 축하합니다. 이 자리에 까지 오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저는 1967년에 졸업한 김성열입니다. 지금 미국 워싱턴주에서 치과를 개업하고 있습니다. 졸업한지 56년만에 오늘 이렇게 모교에 돌아와서 축하를 하게 되어 감개무량하며 영광스럽습니다. 이 영광을 여기 같이 온 내 아내 전후자 여사와 나누고 싶습니다.

치과대학이 나에게 주는 축복이었습니다. 치과는 나에게 돈버는 직업이고 사회에 봉사하는 기회이며 취미생활이고 사교장입니다. 몇십년을 치료 해주다 보면 환자들이 친구처럼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클리닉에 간다는 것이 마치 친구들을 만나러 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을 만나서 골프 이야기, 아이들 이야기,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하면서 치료하고, 그리고 그 친구들이 치과를 나갈 때는 돈을 내고 갑니다. 세상에 이렇게 좋은 직업이 어디 있습니까.(폭소 터짐)

제가 치과대학 다닐 때는 우리말로 쓴 교과서가 없어서 미국 교과서를 수입해 공부했습니다. 신통치 않은 영어실력으로 미국 교과서로 공부하러니 공부를 제대로 했을 리 없습니다. 1975년에 가족과 함께 미국에 이주해서 미국치과면허시험을 보는데 10일동안 시험을 봤습니다.

기초과목 필기시험 이틀, 전문과목 필기시험 이틀, 실기시험 3일, 임상시험 3일, 모두 10일에 걸쳐서 시험을 봤습니다. 그리고 합격했습니다.

당시 워싱턴주 치과면허를 받으려고 신청한 외국인들이 200명이 넘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명이 합격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저였습니다. 성적표를 받아보니 내 성적이 우수했습니다. 해부학은 98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서울대 치대에서 받은 교육이 미국학생들에 뒤지지 않는

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대학에 다닐 때 하루는 사무실에 일이 있어 갔는데 직원이 숫자를 가득 쓴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궁금해서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치과대학 내년 예산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봐도 괜찮느냐고 했더니 보여 주었습니다. 그 예산서를 보니 치과대학생 하나에 들어가는 비용에 비하면 내가 내는 등록금은 아주 작은



졸업식에는 유엔 인권변호사로 활약하고 있는 딸 Shilla와 사위 니콜라스도 참석했다. 오른쪽은 아내 전후자 여사.

부분이었습니다. 나는 등록금이 너무 비싸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게 모두 국민 세금에서 나오는 거였지요.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보답으로 먼저 좋은 치과의사가 되겠다. 그리고 경제적인 여유가 생기면 되겠다 싶다고 마음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열심히 일해서 모은 돈을 내가 졸업한 서울대 치대에 기부하게 되었습니다. 그 기부금은 치과학술연구에 필요한 비용으로 쓰이며 좋은 학술 논문이 많이 발표되어 서울대 치대가 세계적인 치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먹고 입고 사는데 드는 돈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 이상의 돈은 집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야기입니다. 국민학교 1,2학년 때 딱지치기를 많이 했는데 나이 여하를 막론하고 많이 이겼습니다. 소문을 듣고는 이웃 동네 애들이 나한테 딱지치기 도전하러 왔습니다. 그리고 나한테 다 잃었습니다. 그랬더니 대여섯명 되는 3,4학년 애들이 나를 빙둘러 싸고는 자기들이 잃은 딱지를 다 뺏아갔습니다.

나는 분해서 집에 돌아와 집앞 층계에

앉아서 울고 있는데 아버지가 나와서 웬 일이나고 묻고는 하시는 말씀이 “잊어버려라. 지는 게 이기는 거다.” 저는 평생을 지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싸움 한번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렇지만 항상 마음이 평화로웠습니다. 환자들을 이길려고 하지 마십시오, 환자들에게는 지는 게 이기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치과개업하고 얼마 안되었는데 영화배우 로널드 레이건이 대통령에 당선 되어서 TV 뉴스에서 야나운서들이 신이 나서 떠드는데, 그 부인 낸시가 입은 블라우스가 1,000불 짜리라고 야단이었습니다.

블라우스 하나에 1,000불 이라니, 그래

서 3살된 딸하고 설거지하고 있던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블라우스는 얼마 주고 사느냐고, 50불에서 100불이랍니다. 아니 누구는 50불 짜리 블라우스를 입고 누구는 1,000불 짜리를 입느냐고 나는 심각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후부터는 아내에게 비싼 디자이너 옷을 사입게 권장했고 그런 옷을 입은 아내를 칭찬했습니다.

한번은 서강대학 교수 정일우 신부님이 쓰신 ‘내 이웃을 하나님 같이 대하라’ 라는 글을 인상깊게 읽었습니다. 그 글에서 내 아내가 내 하나님이며, 내 아들딸들이 내 하나님이며, 내 친구들이 내 하나님이며, 내 직원들이 내 하나님이며, 내 환자들이 내 하나님이며, 우리집 정원사가 내 하나님이며, 우리집 도우미가 내 하나님이며,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내 하나님처럼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감히 하나님같은 우리 아내에게 어떻게 화를 낼 수 있습니까. 감히 하나님같은 우리 직원들을 어떻게 야단을 칠 수 있습니까.

우리 치과에서 환자들을 상대로 써베이를 하는데 오랫동안 내 환자였던 사람들이 나를 Honorable Man 또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합니다. 아내를 하나님같이 존중하십시오. 남편을 하나님같이 존중하십시오.

이번 스피치를 준비하면서 내가 그리고 우리 부부가 아주 열심히 살아왔구나, 행운을 우리가 받아드릴수 있게 준비를 열심히 하면서 살아왔구나, 그리고 우리가 행운을 만들면서 살아왔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 행운을 마음껏 누리며 또한 이웃과도 나누어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교육 받고 자란 내 학교에 그리고 내가 내 가족을 이루고 살아온 내 지역사회에도 같이 나누어야 보람있는 삶을 사는 거라고 믿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71세 ‘토끼띠 청년’의 도전

언젠가 어느 동창과 얘기중에 새로운 도전에 대하여 얘기하니, ‘무슨 소리냐? 우리 나이는 하던 일도 멈추고 은퇴해야 할 나이인데 무슨 새로운 도전이나, 더구나 새로운 분야라니 미친 소리 하지 마라’고 하였다. 대부분의 친구들이 비슷한 의견이었다.

하지만, 정년퇴직한 교수, 공무원, 대기업 CEO 등등이 은퇴후 할 일이 없어 무료하고 온갖 병마와 씨름하며 손자보는 재미로 산다고 한다. 골프도 재미없고 여행도 재미 없다고 한다. 뒷방 늙은이로 사는 것이 당연한 모습이란단다.

내가 수질환경기사(1급)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학원을 다니고, 날을 새면

서 공부하고, 역대 최고령으로 자격증을 취득하고 하니 모두들 대단하다고 한다.

어느 은퇴한 교수는 나의 모습에서 삶의 용기를 얻는다고 한다. 이게 인생인가? 이래야만 하는가? 아직 활동할 수 있는데 왜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하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래서 안되는 이유가 있다. 지금까지 71년동안 빛진 자의 삶을 살아왔는데, 이대로 모든 것을 포기한다면 이는 71년 전에 나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고, 71년 동안 나에게 고난이라는 축복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연마시켜 사용하시기 위함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생명의 불꽃이 꺼지기 전에 나머지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 고(재단설립), 주변 분들에게 진 여러형태의 빛을 갖고 나눔의 삶을 살라는 하나님의 안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기 위해 미래산업인 환경분야(산업폐기물, 의료폐기물 소각공장 등의 설립과 코스닥상장)를 선택하게 하셨기 때문이다.

내가 살아온 71년의 세월

은 기적의 연속이었기 때문이다. 나는 기적을 믿는다. 71년 전에 이 세상에 태어난 것 자체가 기적이었다.

공부하고는 거리가 멀었던 내가 시골에서 서울로 유학온 것도 기적이었고, 고교 시절 교내 신문기자, 동아리 활동 등으로 학업성적이 바닥이어서 대학진학을 포기해야만 했던 내가 7수하여 서울대 상대에 진학한 것도 기적이었고, 늦은 대학 졸업으로 대기업 취업이 좌절되었던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기적이고, 경영학과 졸업자인 내가 환경공학과 전공자들도 어려운 수질환경기사 자격증을 취득한 것도 기적이 아닌가?

내 삶 자체가 기적의 연속인 데 기적 하나를 더하는 게 무슨 기적이란 말인가? 기적은 가능한 것이다.



백병두
상대 77

민병갑(문리대 66) 뉴욕 퀸즈 칼리지 석좌교수 하버드대 교수의 ‘위안부 망언’ 조목조목 비판 사회학협회 ‘평생공로상’ 아시아계 최초 수상

올해 들어 미국서 가장 스포트라이트를 많이 받은 동문을 꼽으라면 단연 민병갑(문리대 66) 박사다. 일본군 위안부와 관련해서다.

위안부 피해자를 ‘자발적 매춘부’로 규정한 마크 램지어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의 도발에 민 동문이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미국은 물론 한국내에서도 일약 ‘스타 교수’로 뿔었다. 위안부가 성노예 시스템이었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것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조 바이든의 대선 승리를 부정한 것과 마찬가지로 비판해 국내외를 막론하고 통쾌하다는 반응이 지배적이었다.

민 동문은 뉴욕의 퀸즈칼리지 석좌교수다. 야마구치 도모미 몬테나 주립대 교수 등과 함께 국제여성학저널(JIWS)에 ‘마크 램지어의 주장에 대한 비판적 평가’라는 제목의 특별판을 게재, 학계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이끌어냈다.

민 교수는 “램지어는 일본 극우단체 행사와 콘퍼런스에 가서 ‘내가 해냈다’고 자랑하고, 영웅대접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위안부를 자발적 매춘부라고 주장한 것을 국제 학술지에 실는 것은 불가능한데, 하버드 법대의 힘을 빌려서 그렇게 한 것”이라며 “그래서 국제여성학술지에 특별판을 만들어서 조직적으로 비판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일본계인 야마구치 교수도 민 교수의 비판에 동조하며 “램지어 교수의 주장은 1990년대 일본의 역사 부정론자들

의 주장을 그대로 반복한 것”이라고 혹평했다.

램지어는 하버드 로스쿨 교수라는 지위를 이용해 지난 1월과 8월 로스쿨 홈페이지 등에 “위안부 강제동원을 입증하는 문서가 없다”고 주장해 학자들의 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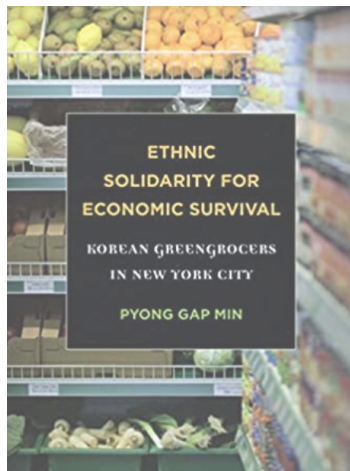
한인사회연구에 관한 한 최고의 전문가로 꼽히는 민병갑 동문이 뉴욕 퀸즈 칼리지에 세워진 한국 장승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계심을 키웠다.

민 동문은 샌프란시스코, LA, 뉴욕 등 곳곳에서 위안부 기림비를 세우면서 일본 우익들이 아주 큰 타격을 받았다며 아베 신조 전 총리 이후 미국에 상당한 돈을 투자해 기림비를 막고 학술활동을 지원하는 역사전쟁을 시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 결과 전범기업인 미쓰비시의 후원으로 램

지어가 하버드 로스쿨의 ‘미쓰비시 일본법학교수’로 임용될 수 있었다고 폭로했다.

민 동문은 2년 전 위안부 피해자 108명의 증언을 토대로 참혹한 강제동원 피해사실을 고발한 영문서적을 펴냈다.



민병갑 동문의 역저 ‘경제적 생존을 위한 인종적 연대’. 뉴욕타임스가 2개면에 걸쳐 보도할 정도로 큰 반향을 일으켰다.

지난 1993년 황금주 할머니의 통역을 맡은 것을 계기로 위안부 피해자들의 증언집을 상세히 분석하고 직접 인터뷰해 책을 펴낸 것.

피해자 분석결과 자발적으로 위안소에 간 경우는 4명에 불과했다. 거의 모두 취업사기, 유괴 또는 연행, 강제 동원 등으로 끌려간 것으로 확인됐다.

민 동문은 원래 대학에서 사학을 공

부했다. 1970년대 미국에 유학와서 전공을 사회학으로 바꿨다. 미국 이민사, 동포사회를 좀 더 객관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사회학 공부가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애틀랜타의 한인 자영업을 분석한 논문을 써내 조지아 주립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특히 사회학적 인종학적 분석 틀에 머물지 않고 이민자들의 사업활동에 초점을 맞춰 경제학적 시각을 접목한 그의 연구 방법론은 학계에서 독창성을 인정받고 있다.

그가 펴낸 ‘경제적 생존을 위한 인종적 연대(Ethnic Solidarity for Economic Survival)’는 뉴욕 한인사회의 중추인 청과상이 어떤 배경속에 뿌리를 내렸고, 그 과정에 인종적인 유대가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해 학계의 비상한 주목을 끌었다. 뉴욕타임스가 2개면을 할애해 책 내용을 상세히 소개할 정도였다.

민 동문은 단점을 장점으로 바꾼 한인들의 강한 생존력과 언어장벽이 오히려 자영업자를 양산하고 도매상인 백인과 고객인 흑인과 갈등하며 단결한 것을 성공요인으로 꼽았다.

이 같은 민 동문의 학문적 성과가 인정돼 지난 2012년 아시아계로는 유일하게 미국사회학협회가 주는 ‘평생 공로상(Distinguished Career Award)’을 받았다.

이 상은 지난 15년동안 전체 수상자가 10여명에 불과할 정도로 소수의 학자들만 받은 최고의 영예다.

화제의 동문 유튜버



이충녕
철학 14

“끝없이 고민하면서도 답이 나오지 않을 때, 철학의 도움을 빌려보세요.” 이충녕 동문이 권하는 고민 해결 비법은 바로 철학이다. ‘인류에게 목적이 있을까’, ‘인간은 전쟁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 등 제목만 봐도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꼬리에 꼬리를 무는 논리적인 전개와 쉬

운 언어로 철학가까지 7만8000여 구독자를 당겨앉혔다.

이 동문이 철학 유튜브를 시작한 것은 3년 전. “젊은 사람도 충분히 철학적인 활동을 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기존 철학의 체계 바깥에서 내 나름의 생각과 지식을 많은 사람에게 전달하고 싶었다”고 했다. 독일 베를린 자유대학에서 석사과정을 밟는 지금까지 해오고 있다.

소크라테스와 아리스토텔레스 등 고대·중세 철학과 헤겔, 니체 등 근대철학, 하이데거, 들뢰즈 등 현대철학, 종교철학, 동양철학까지 아우른다. 특히 일상 속의 작은 문제와 철학을 결부시킨 영상들이 눈에 띈다.

‘불안이 몰려올 때 도움되는 철학’으로 스토아 학파를 소개하거나, 플라톤의 ‘국가’를 통해 ‘조금 억울해도 정의롭

‘충코의 철학’ “고민하고 있나요? 철학에서 답 찾으세요”

게 살아야 하는 이유’를 설명한다. ‘남사친 여사친(연인관계가 아닌 이성친구)은 존재하는가’ 같은 문제까지 철학으로 풀어내는 재기발랄함이 엿보인다.

‘취업이 될까’, ‘점수맞춰 가는 과 아닐까’ 등 철학과에 대한 오해를 풀어주는 영상도 흥미롭다. 이 동문은 고교시절 실존에 대한 고민을 시작했고, 우연히 철학을 접하고선 철학자들도 나와 똑같은 고민을 해왔다는 것에 위안을 받았다고 했다.

그리고 “삶에서 가장 중요한 실존에 대한 문제가 우리사회에서 너무 과소평가된 것 같다. 정신적인 빈곤에 처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확신을 갖고 철학과에 진학했다고 말했다. 예전의 것처럼 구독자들도 ‘오랫동안 생각하던 것에 대한 답을 이 채널에서 발견했다’며 기뻐하는 것이 눈

에 띈다.

짧은 영상 안에 한 가지 답이 나오지 않는 철학을 담느라 고민도 많다는 그는 “조희수가 목적이면 아주 단순화시킬 수도 있지만, 지식을 전달하는 유튜버로서 그럴 수 없다”며 “정답이 없는 걸 깊이 성찰하고, 더 자유롭고 자비로운 관점에서 바라 보도록 하는게 철학의 목적이다. 내 관점을 전달하는 것을 최선으로 삼겠다”는 생각을 드러냈다.

아쉬움을 품고자 최근 책 ‘어떤 생각들은 나의 세계가 된다’를 펴냈다. “일상에서 시작된 작은 질문을 주변으로 확장하면서 마침내 더 넓은 세계에 도달하는데 철학이 도움을 줄 것”이라는 취지로 썼다.

서울대 창업 동아리 ‘스넥’(SNAAC) “미주 동창회 선배님들을 만나 큰 격려 됐어요” ‘스타트업 라운드테이블’ 줌 모임에 관심 보여

“미국에 계신 선배님들의 도움과 조언이 절실했습니다.”

지난 3월 2일 서울대 재학생들로 구성된 ‘스넥(SNAAC · Start-up Network And Accelerating Club)’ 단원 7명이 미주 동창회(회장 노명호 · 공대 61)를 찾았다. 창업과 관련해 도움을 받기 위해서다.

‘스넥’은 서울대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한, 학생 주도의 비영리 엑셀러레이터다. 다양한 전공과 창업 경험을 가진 학부생들로 구성돼 있다. 엑셀러레이터는 창업한 회사가 빠르게 성장하도록 도울 수 있도록 초기 자금과 멘토링 지원 등을 하는 그룹이다. 기업가나 투자자가 직접 비용을 투자, 자본을 공급한 대가로 지분을 받는다. 스넥은 엑셀러레이터이지만 예외적으로 비영리 단체다.

스넥은 미국에 본사를 둔 프라이어 살세로 부터 투자를 받는 등 최근 모두 5건의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

스넥의 신세명(원예생명공학 16) 대표는 “미국은 창업과 혁신으로 오늘의 부를 일궈낸 국가”라며 “모든 서울대 구성원들이 창업과 관련해 미국과 연계를 하거나 접점을 찾기를 원하지만 그동안 쉽지 않았다”고 말했다. 신 대표는 “이번 동창회 방문을 통해 우리의 꿈이 현실이 될 것만 같은 생각이 들어 기대가 자못 크다”고 미주 동창회의 배려를 고마워했다.

신 대표에 따르면 스넥은 매년 2회 팀을 선발해 약 10주간에 걸쳐 벤처 캐피탈과의 1대 1 멘토링, 선배 창업가들과의 그룹톡을 통해 노하우를 전수 받는다. 이와 함께 ‘스넥’ 출신 동문들과 지속적인 교류를 갖는 등 혜택이 주어진다. 총 상금은 7,000만원으로 1등으로 선발된 팀에게는 5,000만원이 지급된다.

최근 한국의 대표적인 유니콘(기업 가치가 높은 스타트업) 기업 115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서울대 출신이 창업한 회사는 전체의 20%가 넘는다. 스넥이 설립된 것은 이같은 배경에서다.

서울대는 지난 1월 라스베이거스에서 개최된 세계 최대 IT·가전제품 전시회인 CES에 ‘SNU 전시관’을 열고 AI, 로봇, 의료기기, 바이오헬스케어, 암호화 기술 등 서울대 기술을 활

용한 12개 스타트업 기업들을 소개했다. 학부생들의 기업 인턴십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학생 서포터즈단’을 구성해 참여기업들을 지원하기도 했다.

교내 공모와 평가를 통해 선발된 서포터즈는 전시기업에 1대 1 매칭되어 기업홍보 지원은 물론 글로벌 최신 기

60 · UCLA 석좌교수) 박사로부터 동창회 차원의 창업 지원 프로그램 등을 소개 받고 앞으로 스넥과 동창회가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스넥 단원들은 그동안 미주 동창회가 창업과 관련해 성과를 낸 사례들을

려했다.

모교는 이번 학기부터 창업을 하려는 학생들에게 최대 4학기 휴학을 인정해 주기로 하는 등 창업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한 박사는 향후 모교의 창업지원단과도 연계해 동창회와 모교가 서로 윈윈할 수 있도록 SNUAA Ventures 프로그램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간 서울대 구성원들은 창업에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었다. 대학은 돈 버는 곳이 아니라 학문의 전당이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다.

한 박사는 “창업은 장사해 돈 버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으며 혁신과 융합에 기반한 가치 창조로 사회공헌의 꿈을 실현하는 것”이라며 “비영리 조직이나 사회적 기업도 당연히 창업의 대상이며 꿈 실현의 방안이기에 모든 학문 분야에서 창업이 가능하고 이는 새로운 가치 창출을 위한 혁신적 사고와 의지를 일컫는 기업가정신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주 동창회를 방문한 스넥 재학생들의 꿈을 들어봤다.

▲신세명(원예생명공학부 16)

대학원 진학 후 바이오 벤처랩을 창업할 계획이다.

▲민형기(산업공학 18)

창업을 두번 해봤다. 비록 성공은 못했지만 많은 걸 배워 결코 실패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또다시 도전해 보겠다.

▲윤지원(조선해양공학 19)

창업과 학업을 함께 해나가겠다. 로봇과 같은 기술 창업에 관심이 많다. 이번 미국 방문이 큰 도움이 됐다.

▲진서현(산업공학 16)

스타트업에 관심을 두고 있다. 벤처 캐피탈 쪽으로 진로를 생각하고 있다. 이 분야에서 꼭 성공하고 싶다.

▲김준수(기계공학 18)

기술창업 쪽으로 나갈 계획이다. 텔로팜의 성공사례에 큰 자극을 받았다.

▲이지웅(재료공학 18)

창업에 관심이 많다. 투자유치에 집중할 계획이다.

▲김민서(경영 21)

벤처 캐피탈리스트가 되는 것이 꿈이다. 스넥에서 활동하며 많은 것을 배워가고 있다.

재학생들로 구성된 비영리 엑셀러레이터 자금과 멘토링 지원, 선배의 노하우 전수 미국 투자회사로부터 벤처캐피탈 유치



미주 동창회를 방문한 서울대 창업동아리 ‘스넥’ 단원들. 사진 뒷줄 왼쪽에서 시계방향으로 이지웅(재료공학부 18), 민형기(산업공학 18), 노명호(공대 61) 미주 동창회장, 한홍택(공대 60) UCLA 석좌교수, 윤지원(조선해양공학 19), 김준수(기계공학 18), 신세명(원예생명공학 16), 김민서(경영학 21), 진서현(산업공학 16).



술 트렌드를 경험할 수 있는 견학의 기회도 가졌다.

CES 참가는 서울대의 우수 기술로 만들어진 창업 기업들의 글로벌 진출 가능성을 타진하고 전 세계에 서울대학교를 브랜딩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는 것이 자체 평가다.

스넥 재학생들은 미주 동창회의 주력 프로젝트 중 하나인 ‘창업 라운드테이블(Entrepreneurship Roundtable)’을 우연한 기회에 알게 돼 동창회를 방문하게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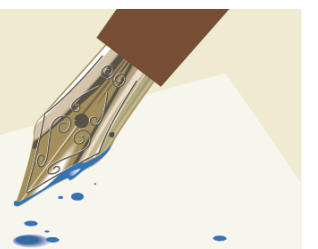
스넥 방문단은 동창회의 브레인 네트워킹을 총괄하는 한홍택(공대

듣고는 매우 고무적인 표정이었다. 이정훈(공대 86) 교수가 창업한 텔로팜이 동창회의 도움을 받아 현지법인을 설립했다는 설명에 김준수 학생은 “와, 우리 기계공학과 교수님이신데...”라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이 교수가 한 박사의 UCLA 학생이었다는 얘기를 듣고는 더욱 놀란 표정이었다.

노명호 회장은 앞으로 동창회 차원에서 모교 재학생들의 창업 활동을 지원하겠다고 꾸준히 접촉을 갖자고 제의했다. 한 박사도 “문제가 있으면 언제든지 우리에게 연락을 해달라. 자문을 해주겠다”며 후배 창업단원들을 격

원고 모집합니다

주제	독자들의 생각과 식견을 넓혀주는 각 분야의 다양한 글 (사회, 경제, 문화, 예술, 문학, 철학, 역사, 과학, 의학, 생명과 환경, 여행, 취미 등)
글의 양	500 단어 (글자 수 2,000자) 내외 글, 레터용지 한장 반 이내
사진	고화질로 찍은 필자의 프로필 사진
보내실 곳	원고와 사진은 snuausa30@gmail.com 로 보내주십시오.



체데크(Chedech) 세계 최경량, 착착착 3번 접는 카본 자전거



문의배
인문대 91
카나프 대표

접이식 자전거 시장에서 큰 성장이 예상되는 회사가 있다. 세계 최경량(7.8kg) 3단 접이식 자전거 체데크(Chedech)를 개발한 카나프다. 체데크 자전거는 프레임과 핸들, 안장봉 등 모든 주요 부품이 카본으로 제작된 7~8kg 대의 경량 자전거로 여행, 출퇴근에 최적화돼 있다. 카본자체는 바닥으로부터 오는 진동을 흡수해 장거리 여행도 즐겁게 해준다.

체데크 자전거를 개발한 문의배 대표는 원래 브롬톤 마니아였다. 브롬톤은 프랑스 자전거를 모방한 3단 접이식 자전거를 만들어 세계적으로 유행을 시킨 영국 회사다. 목회를 꿈꾸고 장로회 신학대학원을 다니던 시절, 주말 광나루에서 부천까지 자전거를 이용해 집을 오가면서 자전거에 심취했다.

“그때 만난 자전거가 브롬톤이었어요. 고가의 자전거였지만, 오래 탈수록 뭔가 아쉬움이 많이 들었습니다. 무거웠고, 속도감을 느낄 수 없었으며, 승차감이 좋지 않았습니다. 철 프레임의 한계였죠. 많은 사람들이 경량화를 위해 부품 업그레이드를 놓고 고심할 때 저는 동일한 접이구조이지만 카본프레임으로 된 자전거를 만들어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대학졸업후 탁구용품회사를 운영하며 모은 돈으로 자전거개발을 시작했다. 많은 자본 투입과 개발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일이라 주위에서 말렸지만, 가벼운 접이식 자전거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확고했고 성공할 자신이 있었다. 그때가 2013년.

“카본으로 접이식 자전거를 만드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인 카본 자전거는 삼각형 구조를 갖고 있으나, 체데크는 접이식 구조를 위해 일자형 프레임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카본

로운 브레이크, 기어 라인의 구조를 개발하고 접이방식도 간편한 원클릭 방식을 적용했다. 2016년 첫 판매를 시작해 6년이 지나오면서 외장 기어 방식까지 도입, 오르막 길도 어렵지 않게

접이식 원조 브롬톤과 소송 승소
7~8kg대로 속도 · 승차감 · 편리성

CHEDECH



유로바이크에서 체데크 자전거에 관심을 표하고 있는 관람객들.

소재는 휘는 속성이 있어 일자형 구조를 취하면 핸들과 안장 그리고 페달에 걸리는 무게로 인해 자전거가 흔들리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를 보완하기 어려워 자전거 업계에서는 카본으로 된 접이식 자전거 제작은 불가능하다고 알려져 왔죠.”

문 동문은 3년간 6개의 프레임을 제작해오면서 이 문제를 해결했다. 뿐만 아니라 가볍게 달리도록 하기 위해 새

오르는 등 흠잡을 데 없는 접이식 자전거로 완성됐다.

카본의 원가 특성상 가격은 한대 가격이 300만원을 상회했지만, 새로운 접이식 자전거를 찾는 수요가 꾸준히 현재까지 1000여 대가 주인을 만났다. 한국 자전거 업체에서는 유일하게 2016년부터 꾸준히 유로바이크에도 출품해 유럽 고객들에게도 이름을 알리고 있다.

체데크를 위협으로 느낀 브롬톤은 2019년 형태 특허 침해로 체데크를 유럽 법원에 제소했다. 브롬톤과 유사한 3단 접이식 자전거 생산업체가 국내외 여럿 있지만, 체데크에만 유일하게 소송을 걸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으로 이해됐어요. 우리가 당연히 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스페인과 벨기에의 변호사를 고용해 소송전에 돌입했습니다. 우리 기술에 자부심이 있었으니까요. 브롬톤도 한국의 작은 회사가 이렇게 치밀하게 대응하는 것을 보고 많이 놀랐을 겁니다.”

3년여의 긴 공방속에 유럽법원은 체데크의 손을 들어줬다. 브롬톤의 3단 접이 형식은 이미 널리 알려진 기술이며, 체데크는 카본이라는 소재를 써 차별화 된 기술을 적용했다는 판단이다.

브롬톤은 체데크의 성공을 조금이라도 지연시키기 위해 추가적인 항소를 한 상태이지만, 두 자전거 간의 기술적 격차가 커서 한국시장에서는 체데크를 인정하는 고객들이 가파르게 늘고 있다.

체데크가 소송에서 이기긴 했어도 유럽 시장에서 브롬톤의 영향력은 막강하다. 다양한 홍보채널을 통해 예술성 단서 조항을 강조하며 브롬톤이 이긴 것처럼 선전하고 있다. 전세계 고급 자전거시장의 절반이상을 차지하는 유럽에서 판로는 절대적이다.

“중국에 공장을 두고 제품을 수출하는 것도 코로나로 인해 어려워지고 있고, 카본 원사의 단가 상승도 부담입니다. 중국내 제품에 대한 유럽, 미국의 무역장벽이 높아져 수출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고요. 한국에 생산 공장을 속히 지어야 하지만, 문제는 자본여력입니다. 기술과 개발 노하우가 충분한데, 투자가 아쉬운 상황입니다. 제품의 미래 가치가 확실하니 계속 노력해 봐야죠.”

문의배 대표는 학창시절 탁구부원으로 활동했다. 졸업후 30대 초반에 시흥시에서 정책기획단 사무국장을 역임했다. 현재 Tak9.com이라는 국내 최대 탁구 용품숍도 운영하고 있다.

넥시(NEXY)라는 탁구 고유 브랜드를 갖고 있으며, 티바, 스티가, DHS 등 세계적인 용품사의 한국파트너다. 체데크 자전거는 카나프(www.kanaph.com) 사이트에서 만나 볼 수 있다.



동창회 사랑은 동창회비 납부부터

연 100 달러 ... 동창회비 제작과 사회공헌 활동 등에 긴요하게 쓰입니다.

SNU Alumni Association in the USA

2410 James M Wood Blvd., Los Angeles, CA 90006-2005 | Tel: 213-908-5586 | Email: snuaausa30@gmail.com

시카고 동창회 올해 첫 임원회의 예산안 · 행사 프로젝트 집중 검토

시카고 동창회(회장 황치룡 · 문리대 65)의 올해 첫 임원회의가 지난 2월 19일 중식당 쌍용에서 열렸다.

이날 임원진과 전 · 현직 회장들은 올해 행사 계획 및 예산안을 검토하는 등 팬데믹 이후의 시카고 동창회가 진행할 프로젝트들을 꼼꼼하게 챙겼다.

이날 모임에는 최근 핵심 현안으로 떠오른 동창회의 비영리기관 재등록건을 집중 토의했다. 일리노이 규정이 바뀌어 세무보고 과정에서 실수가 발생한 것.

황 회장은 “앞으로 이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

하겠다”며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산타 동아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사진 등 신규 동아리를 창설하며 적극적으로 동문들의 동정을 확인, 소식을 전파하기로 했다.

한편 3월 5일에는 실행임원회의가 열려 현안 과제들을 집중 논의했다. 먼저 장학금 사업이 핵심 안건으로 올랐다.

임원들은 기존 선발기준으로는 실제 장학금을 필요로 하는 신청자를 가려내기 어렵다며 학사일정을 고려해 장학생 선발 공고시기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남가주공대 동창회 오렌지카운티 오찬 30여명 참석, 2시간 넘게 담소나눠



오렌지카운티에 거주하는 30여 공대 동문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남가주 공대동창회는 5월중 LA카운티에서도 오찬 모임을 가질 예정이다.

남가주공대동창회(회장 배재현 · 공대 75)오찬 모임이 지난 3월 17일 LA 인근 부에나비야의 소스몰내 한 식당에서 열렸다.

이날 모인 동문은 30여명. 한귀희 동문이 점심값과 커피 스낵 등을 모두 부담해 모처럼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이날 모임은 오렌지카운티에 거주하는 동문들을 초청,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두시간 넘게 진행됐다.

배재현 회장은 남가주의 교통체증이 심각하고 또 오렌지카운티 거주 동문들이 많아 오찬 모임을 두 곳에서 갖기로 했다고 말했다. LA카운티 모임은 5월에 예정돼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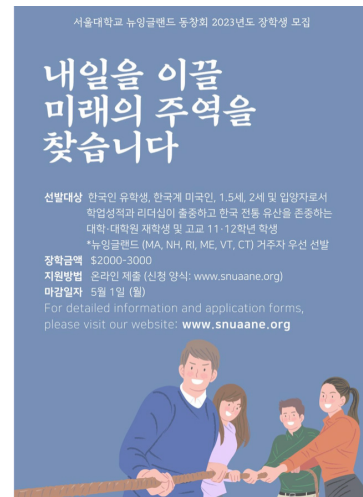
참석 동문이 예상외로 많자 한 동문은 “오렌지 카운티 거주 동문들만 따로 모아 동창회를 만들자”고 즉석 제안, 폭소가 터져나오기도 했다.

뉴잉글랜드 장학생 선발 2,000~3,000 달러, 11학년 이상 대상 5월 1일 마감, 6월초 이메일 개별 통보

뉴잉글랜드 동창회(회장 임영호 · 공대 72)가 2023년도 장학생을 모집한다.

대상은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 또는 고교 11학년 이상으로 한국인 또는 한국계 미국인 유학생, 1.5세와 2세 및 입양자로 한국의 전통을 존중하는 학생

▲뉴잉글랜드 지역(매사추세츠, 뉴햄프셔, 로드 아일랜드, 메인, 버몬트, 커네티컷)에 거주하는 지원자 우선 ▲지원서류는 신청서와 에세이



(2쪽 이내), 성적표 등이다.

장학금은 1인당 2,000~3,000 달러이며 특히 장학금의 독창적인 활용계획을 가진 지원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마감은 5월 1일까지. 신청서는 동창회 웹사이트(www.snuaane.org)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발표는 6월 초. 선발된 장학생에게 이메일

로 통보한다.

▲문의: snuaane@gmail.com

남가주총동창회 골프 토너먼트 5월4일 캘리포니아 컨트리클럽

남가주총동창회가 주관하는 골프 토너먼트가 5월 4일(목) 캘리포니아 컨트리클럽에서 열린다. 토너먼트는 이날 오후 1시부터 샷건 방식으로 치러진다.

참가비는 4월 16일까지 신청하는 경우 100 달러, 이후 4월 25일까지는 150 달러다. 4월 26일 이후에는 접수를 받지 않는다.

남가주 총동창회의 골프 토너먼트를 총괄하는 김희경(사대 80) 총무는 “되도록 많은 동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샷건 방식을 택했다”며 “신청자들은 단과대학과 학번, 그리고 핸디캡을 꼭 기입해 보내

달라”고 당부했다. 가능하면 같은 단과대와 학번, 핸디캡 등을 고려해 조를 편성할 계획이다.

대회가 끝나면 저녁 식사를 곁들인 뒤풀이도 있을 예정이다.

▲체크 보낼 곳

114 Washington Blvd., #C
Marina Del Rey, CA 90292

Pay to the Order of SNUAA

▲문의: 310-971-0534(김희경)

▲이메일: hellenkim1@gmail.com
snuaasocal@gmail.com

명복을 빕니다.

박창욱(공대 56) 동문

시카고 골든클럽 멤버인 박창욱(공대 56) 동문이 지난 1월 14일 숙환으로 별세했다고 유족 측이 알려졌다.

토목공학을 전공한 고인은 수로와 댐, 고속도로와 교량 등 많은 대형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한국 재산과 미국 재산 상속을 오랜 경험의 상속법 전문 이종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한국 재산상속에 대해서도 캘리포니아주법을 알아야 상속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 * 미국에서 한국 재산과 미국 재산의 유언장 작성
- * 미국 재산 리빙트러스트 작성
- * 한국 재산에 대한 상속등기
- * 한국 상속세 절세
- * 한국 부동산 매매 및 양도소득세 절세

이종건(경영대 84)

JKLAWUSA, A PROFESSIONAL CORPORATION
한미국제법률사무소

USA 3435 Wilshire Blvd. #4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 787-3107 Fax. (714) 494-7649

Korea Hanmi International Law Firm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86길 11, 310호(역삼동, 한화진넥스빌)
Office. 02-561-9797 Fax. 02-561-9696

제 32차 평의원 회의 ‘꿈의 도시’ 라스베가스에서 열립니다’ 2023년 6월 9일(금)~10일(토)

유홍림 총장 · 김종섭 총동창회장 등 모교서도 대거 참석
여름 가족여행 최적지...예약 서둘러야
Westgate Las Vegas Resorts

미주 동창회 평의원 회의가 두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회의가 매년 6월 여름 휴가시즌과 맞물려 열리고 있어 이번엔 세계적인 관광도시 라스베가스로 결정했습니다. 예년과 달리 올해는 행사를 일반 동문들에게도 전면 오픈하기로 했습니다. 평의원들 뿐만 아니라 동문이면 누구나 와서 즐길 수 있는 서울대인의 축제로 만들 계획입니다. 벌써부터 동문들의 호응이 대단합니다. 호텔룸은 충분히 확보해 둔 상태입니다. 볼거리, 먹거리, 탈거리, 살거리 가득한 라스베가스에 오셔서 동문들과 친교의 시간을 갖고 또 가족과도 오붓한 여 행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호텔예약

평의원 회의 기간 중 일정 숫자의 객실이 서울대 동문들을 위해 이미 예약돼 있습니다. 직접 다음의 번호로 전화를 걸어 예약하시면 됩니다. 서울대 Group Name은 SNU3R입니다. 호텔 담당자에게 이 네임을 주면 큰 폭의 할인가격이 적용됩니다. 다음의 링크를 클릭해 예약을 하셔도 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https://book.passkey.com/go/SSNU3R>

전화: 1-888-808-7410

회의일정

6월 9일(금)

11:00 am ~ 02:00 pm 등록 및 리셉션
02:00 pm ~ 05:00 pm 학술 세미나
06:30 pm~10:30 pm SNUAA 스칼라 수상자 발표 및 디너

6월 10일(토)

09:00 am ~ 04:30 pm 평의원 전체회의
이번 행사의 하이라이트. 차기회장 선출을 비롯해 정관 개정 등 주요 안건이 토의된다. 일반 동문들도 참관할 수 있으나 표결권은 평의원들에게만 주어진다.
06:00 pm~10:30 pm 환영만찬 및 축하공연 유홍림 총장과 김종섭 총동창회장 등의 축사가 있을 예정이다.

6월 11일(일)

라스베가스 및 인근 국립공원 단체관광(추후 공지)

6월 12일(월)

친선 골프(라스베가스 컨트리 클럽)

문의: 918-616-3386(이상강 차기회장) · 818-321-2214(이호진 총무국장)

글로 지은 집 이어령·강인숙의 내집마련 분투기

고 이어령 선생의 동갑내기 아내이자 문학평론가인 강인숙(국문 52)영인 문학관장의 신작 산문집. 신혼 단칸방에서 지금의 '평창동 499-3번지' 영인 문학관에 이르기까지 작은 집필공간에서 위대한 문장을 탐색했던 부부의 노고를 기록했다.

부부의 첫 신혼집은 성북동 단칸방이었다. 조지훈 시인의 압전한 한국식 대문이 보이는 집이었다. 장관은 몰라도 도배는 하고 들어가야 하는 생각에, 신혼부부는 도배지 한 장을 맞잡고 천장에 붙인 뒤 살림을 꾸렸다. 지갑 사정에 비해 호화스러운 '자장면 파티' 외상값 기록이 아직도 가계부 공책에 남아 있다.

삼선교 전차 정류장 근처 셋방은 다 음집이었다. 저자는 그 시절 남편이 사온 붓어 어항을 기억한다. 다음날 아침 붓어 다섯 마리가 전부 어항 속에 얼어붙어 있었다. 구들에 불길미 미치지 않은 탓에 방이 냉골이었던 탓이다. 그래도 결과는 해피엔딩. 물을 데워 살살 뿌리니 붓어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버스에서 우연히 만난 김남조 선생을 모시고 왔던 청파동1가, 해도 들지 않고 현관이 길에 면해 있던 한강로2가, 박경리 선생의 정릉집을 자주 찾았던 성북동1가 시절 등을 거치면서 부부는 쓰고 또 썼다. 사글세 단칸방에서 한 사람이 연재할 글을 밤새 쓰면, 배우자와 아이는 깊은 잠을 이루지 못했으니 집필 공간만이 간절했다. 부부는 마지막으로 '평창동 499-3번지'에 자

리를 잡는다.

첫 사글세 이후 16년 만의 일이었다. 평창동에 자리를 잡은 건 오직 저렴한 땅값 때문이었다. 지금 평창동이야 기세등등하지만 당시엔 성북동 땅값의 4분의 1일 정도였다. 외등이 하나도 없던 빈 산 중턱에 부부는 평생의 터를 잡았다.

돈이 부족해 외벽을 하얀색 페인트를 뿌려 칠한 까닭에 그야말로 '언덕 위의 하얀 집'이었다. 이후 세 자녀가 출가하고 둘이 살기엔 넓어진 집을 부부는 문학관으로 개축한다. 부부 이름 한 글자씩을 따 이름도 영인문학관으로 지었다. 이어령 선생이 쓴 원고료가 벽돌 한 장, 나무 한 그루에 오롯하다.

저자는 적는다. "이어령 선생 한 사람이 글로 지은 집이다. 그의 문학에

대한 대가가 거기 모두 들어가 있다. 그 건물은 그의 원고지 매수의 가시적인 형상이다"라고.

이 책은 2015년 대장암 진단을 받고 항암치료를 거부하며 죽음을 받아들인 이어령 선생이 '한국인 이야기'를 쓰던 당시, 강인숙 관장이 쓴 '집 이야기'다. 받아들여야 하는 죽음이 찾아오고 이제 저자는 홀로 저 큰 건물을 지킨다. 오랫동안 두 사람 뒹이었던 생의 외로움은 어느덧 두 배 이상의 부피로 커져 저자에게 다가왔는지도 모를 일이다.

자기만의 공간을 얻으려 함께 분투했던 저자는 결국 사람이 만드는 공간이 곧 그 사람을 설명해준다는 자명한 진실을 들려준다.



“개성공단은 북에 계륜 같은 존재” 개성 1,200일 빛과 그림자

“누가 봉급을 줍니까. 연장근무 안 해가지고 납품기한을 못 맞추면 공장이 무너질 텐데. 그러면 누가 밥 먹여 줄 것인가”라고 항변하였다고 했다.

...북 측 근로자들도 입주기업의 경영상태를 알고 제품납품이 제대로 안 되고 품질보장이 안되면 회사가 어려워진다는 사실을 산 교육으로 터득한 것이다.”

“북한에서 개성공단은 계륜 같은 존재였을 것이다. 이런 부작용을 이유 삼아 개혁개방의 방향을 뒤로 돌릴 수도 없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려 해도 앞날이 걱정되었을 것이다.”

산림청장, 농림부차관,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을 거쳐 2004년 6월 개성공단관리위원회 초대 이사장으로 임명되어 3년 6개월간을 근무했던 김동근 동문은 최근 '개성 1,200일 빛과 그림자'라는 저서를 출간했다. 개성공단의 초기모습과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개성공단을 발전시켜 가던 과정을 설명하고, 당시 북한 근로자의 생활상과 그들의 임금 체계, 에피소드 등을 기록으로 남기고 싶어 책을 썼다고 했다.

개성공단은 초기 순조롭게 출발하는 듯 했으나, 2006년 이후 북한의 잇단 핵실험으로 가동이 중단된 데 이어 2020년 북한이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 사무소를 폭파함으로써 완전 폐쇄되었다. 최근 북한의 잇단 미사일 및 무인기 도발 등으로 남북한은 긴장국면을 지속하고 있다.

이제 개성공단은 역사의 뒤편길에 머

물고 있으나 언젠가는 남 북경제협력의 소중한 자산으로 평가될 날이 올 것이다.

북한 당국은 북측 근로자들이 자본주의 사고에 물들지 않게 하기 위해 출근하면 각 파트별로 흠어지기 전에 6~10명씩 그룹을 지어 노동신문에 계

재된 중요 내용을 10분 내외로 읽고 서로 토의하는 '독보(讀報)'라는 모임을 가진다. 북측 근로자 중에는 '힘들고 바쁜데 시간만 낭비한다'고 불만을 터뜨리기도 했다.

“공단내 한전의 통신선 절단 도난, 화물차의 배터리 도난 사건이 심심찮게 발생했다. 특히 배터리는 장마당에서 비싸게 거래되는데, 그 이유는 전력 부족현상을 겪고 있는 북한은 잦은 정전에도 계절별, 지역별 선별 송전을 하고 있어 가정

에서는 전기를 충전해 두었다가 필요할 때 전기를 쓰는 배터리가 요긴하기 때문이다.”

S봉제업체 북측 근로자 임금은 월 25일 근무 기준으로 기본 노임 50달러에 연장 근무 수당을 합치면 80달러 수준이다.

북한 당국은 사회보장 시책금(보험) 30%를 공제한 후에 북한 원화로 1인당 2500원(약 18달러)을 지불하고 개인별 잔액은 물자공급소에 통보해 놓은 대로 해당 금액만큼 판매 전표(물자구입권)를 발급해준다. 북한의 국정환율은 1\$=140원이나 장마당 시장 환율은 1\$=2500원이라고 했다.

이경형<문리대 66·충동창신문 편집인>



“개성공단은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개성공단 초기 모습과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만들어 가는 개성공단 성장 과정을 담았다.

김동근(농대 66)
개성공단관리위원회
초대 위원장



since 1999 듀오USA

결혼해듀오

대표이사 박수경
[84인 소비자학과]

www.duouusa.net

LA 213-383-2525
NY 201-947-2525

‘마에스트로’ 금난새(음대 66)와 함께하는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평화 음악회 Peace Concert

Commemorating the 70th Anniversary of the Korea-U.S. Alliance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서울대총동창회(회장 김종섭·문리대 66)와 한미동맹재단(이사장 유명환·법대 64), 주한미군전우회(회장 커티스 스캐퍼로티·전 한미연합사령관)가 기념 음악회를 개최합니다. 음악회에는 ‘마에스트로’ 금난새 동문이 지휘하는 성남시향도 특별 출연합니다.

금난새 동문은 70여명으로 구성된 오케스트라를 지휘, 비제의 오페라 ‘카르멘’과 ‘아를루의 여인’ 조지 거슈인의 ‘랩소디 인 블루’ 등 우리에게 익숙한 음악을 들려줍니다. 이외에도 유명 솔리스트들이 출연해 LA의 여름밤을 아름다운 화음으로 수놓을 것입니다. 동문 여러분의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일시: 2023년 6월 28일(수) 오후 7시30분
장소: Walt Disney Concert Hall
111 S. Grand Ave., Los Angeles
문의: 818-321-2214 · 408-206-6358



주관: 서울대총동창회 · 한미동맹재단 · 주한미군전우회 | 특별후원: LA 총영사관 · 후원: LA한인회 · 삼익악기



한영신의 헬스푸드(7)

11시 전에 자고 야식은 금해야 성장호르몬 분비

먹을 것이 많고, 영양제도 많고, 건강 정보도 많은데 사람들의 건강은 그다지 좋아지지 않는 것 같다. 나와 같은 나이대인 50대 친구, 선후배들을 보면 겉으로는 참으로 젊는데, 이야기하다 보면 당뇨, 고지혈증, 고혈압 등 만성적 건강 문제를 대부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놀라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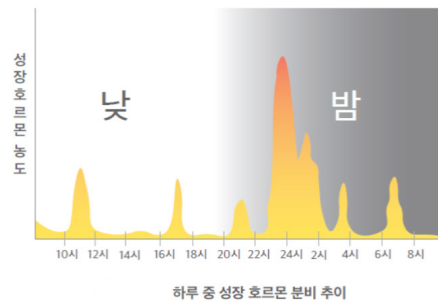
기술로 겉보기 나이는 젊게 할 수 있으나, 건강은 기술만으로 되지 않는다. 매일 매일의 생활습관이 건강을 결정하기 때문에 건강한 생활의 실천이 필요한데, 현대사회에서 이것을 실천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져가는 느낌이다.

그러면 현대사회에서 신체 건강을 나쁘게 하는 요인이 무엇일까? 늦은 수면, 불규칙한 식사, 스트레스 등이다. 이 3가지는 신체의 예측을 떨어뜨리고, 호르몬의 분비에 영향을 미친다. 주변에 몸이 좋지 않아 안되겠다 싶어 건강하게 먹고 운동을 하고 있는데도 살이 빠지지 않고, 건강도 좋아지지 않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꽤 많다, 그래서 그들의 생활을 살펴보면, 바쁜 업무로 늦게 자고, 몰아서 먹고, 스트레스는 기본으로 깔고 살고 있다.

건강하게 먹은 음식이 내 몸에서 잘 사

용하게 하려면 호르몬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한 호르몬 전문가는 중년의 건강을 지키는 호르몬 삼총사를 인슐린, 성장호르몬, 멜라토닌이라고 한다.

‘다 큰 어른이 무슨 성장호르몬의 영향을 받을까?’ 라고 의문을 가지는 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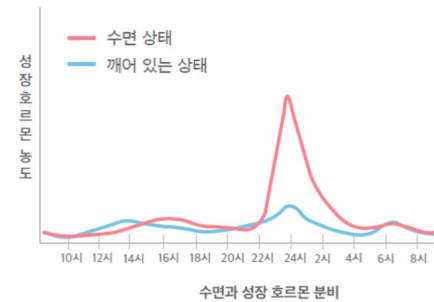


들이 있으실 것 같다. 성장호르몬은 평생 동안 분비되는 호르몬이고, 청춘 호르몬, 회춘 호르몬이라고도 불린다.

성장호르몬은 뼈 성장을 촉진하고, 근육과 콜라겐 합성을 촉진하고, 지방을 분해시키고, 에너지 대사에 관여한다. 아이는 키를 크게 하고, 다이어트 하고자 하는 사람은 지방을 빼 주면서 근육량을 늘려주고, 노인에게는 피부를 젊게 하고 활력을 준다. 그래서 인터넷에

복부비만 치료나 회춘 방법으로 성장호르몬 요법을 권하는 의사들의 내용이 꽤 많이 검색된다.

노인들에게 성장호르몬 요법을 권하는 것은 성장호르몬이 사춘기에 최고조에 이르렀다가, 20대부터 10년마다 약



15%씩 감소하여 60대 이르면 최고치의 절반이 되고 70대에는 툭 떨어져 20%가 되니 부족한 성장호르몬을 보충해주는 것이 좋은 까닭이다.

그런데 성장호르몬 요법이 비용도 들고 부작용이 있지 않을까 걱정이 되기 때문에 쉽게 할 수는 없는 요법은 아닌 것 같다.

성장호르몬을 맞기 보다는 인체가 어느 조건에서 성장호르몬을 최대 분비

하는지 알고 실천하는 것이 경제적이고 안전한 방법이다.

성장호르몬은 밤 12시에서 새벽 2시경에 가장 많이 분비되는 호르몬이다. 잠을 안자면 성장호르몬 분비가 감소하는데 감소 폭이 매우 높다. 그래서 제 시간에 자는 것은 필수이다.

12시 넘어서 자다 보면 야식을 먹게 되는데 위나 장에 음식이 있게 되면 성장호르몬 분비를 방해한다. 그래서 저녁을 8시 이전에 먹고 이후 아무것도 먹지 않고 11시 이전에 자야 한다. 11시 이전에 자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아침을 먹게 되니 규칙적인 식사는 저절로 가능해진다. 낮에 운동을 하면 성장호르몬 분비가 촉진되니 규칙적인 운동을 30분 이상 해보자.

최근 이 방법을 통해 아이들 키 크기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는데 예상보다 키가 많이 커서 생활습관의 중요성을 깨달았던 경험이 있다.

생활습관 별거 아니겠지라고 생각하고 특별한 건강 비법을 찾고 있었다면 이제 생각을 바꾸어보자. 건강과 활력은 매일 매일 건강실천으로 내 몸의 건강호르몬을 찾는 것에서 시작된다.

〈식품영양학 박사〉

비타민 D 먹으면 치매 덜 걸린다
70대 1만2천명 10년 추적 결과

비타민D 보충제를 꾸준히 섭취하면 치매 예방을 돕는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캐나다 켈거리대와 영국 엑서터대 공동 연구팀은 평균 연령 71세 노인 1만 2388명을 10년간 추적 조사해 비타민D 보충제 섭취와 치매 간 관계를 조사했다. 대상자 중 비타민D 보충제를 먹는 4637명은 A그룹, 먹지 않는 7751명은 B그룹으로 나눠 조사해 이들의 치매 발병 여부 등을 살펴봤다.

그 결과 A그룹의 치매 진단 비율은 B그룹보다 40%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0년간 치매에 걸린 사람은 모두

2696명(21.8%)인데, 이중 2017명(75%)은 진단 전 비타민D 보충제를 먹은 적이 없었다. 반면 초기부터 비타민D 보충제를 꾸준히 먹어온 사람은 679명(25%)뿐이었다.

이같은 비타민D 보충제의 효과는 치매 전조 증상인 경도인지장애(MCI)가 시작되기 전 섭취했을 때 더 좋았다.

치매 고위험군을 뜻하는 MCI는 기억력이나 기타 인

지기능이 객관적인 검사에서 확인될 정도로 뚜렷하게 감퇴한 상태를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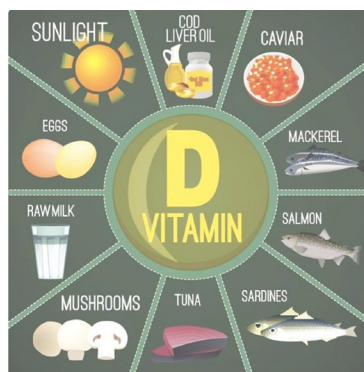
이외에도 남성보다는 여성에게, 알츠하이머성 치매 위험인자인 변이유전자(APOEε4) 미보유자에게 더 유의미한 효과를 보였다.

논문 교신 저자인 자히누르 이스마일 교수는 “이 결과는 비타민D 보충제가 특정 층의 치매 예방에 효과적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며 “특히 인지능력 저하가 시작되기 전 보충제를 먹는 게 치매 예방에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공동 연구자인 바이런 크리즈 교수도 “전 세계 5000만명 이상이 치매를 앓고 있고 그 수가 2050년까지 3배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을 고려할 때 치매 예방이나 발병 지연은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결과는 비타민D 섭취가 이같은 효과를 보일 수 있음을 알려준다”고 했다.

이 연구 결과는 의학 학술지 ‘알츠하이머&치매: 진단, 평가, 질병감시’에 게재됐다.



미주 동창회 웹사이트 확 바뀌었습니다

snuuaa.org

미주 동창회 웹사이트(www.snuuaa.org)를 새로 단장했습니다. 정보 접근성과 사용자 편의성 등 홈페이지 기능을 강화했고 동시에 디자인을 전면 개편했습니다.

홈페이지에는 ‘브레이킹 뉴스’를 비롯해 각종 공지사항이 소개됩니다. 동창회보의 1면 기사가 사진과 함께 화려하게 장식됩니다. 미주 동창회가 주관·진행하는 주요 사업과 매달 열리는 포럼 등이 소개돼 홈페이지만 봐도 동창회의 활동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습니다.

특히 뉴스를 보강한 것이 눈에 띕니다. 2009년부터 지금까지 발행된 동창회보를 연도와 월별로 읽을 수 있도록 pdf 파일을 첨부해 놔습니다. ‘종이’보다는 ‘디지털’에 더 익숙한 세대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확 바뀐 snuuaa.org에 동문들의 많은 관심과 접속을 바랍니다.

노르웨이 로포텐의 겨울 풍광



디즈니의 애니메이션 '겨울왕국'의 모티브가 된 곳이라는 노르웨이의 로포텐. 북극의 오로라가 이 마을을 비추며 화려하게 춤을 추는 모습에 그만 눈물이 핑 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다는 이곳에서 오로라를 볼 수 있다니 그 감격이란...

노현숙
(Mrs. 노명호 · 공대 61)

눈 앞에 펼쳐진 절경에 그만 눈물이 핑
바람이 불면 바람을 찍어야 한다는데~
자연은 나에게 또 겸손을 가르친다



언제나 그랬듯이 이번 노르웨이 로포텐 출사도 방효신(약대 56, 오른쪽) 형님과 함께였다.

로포텐(Lofoten)은 노르웨이 북쪽에 위치한 섬들이 늘어선 제도(archipelago)이다.

겨울이면 바닷물이 따뜻해 대구떼가 알을 낳으러 몰려드는 대구의 집산지이다. 여기저기 해풍 맛기에 적합한 언덕 위에는 대구 덕장이 줄지어 있다. 참 지저분할 수 있는 풍경이지만.

깨끗이 정돈되어 있는 것이 이 나라 사람들 성격인가 싶기도 하다. 시간이 있어 대구 공장엘 가봤다. 과연 선진 청정국답게 공장은 깨끗하고 정갈했다. 생대구는 서너살 먹은 아이만큼 크다. 그 머리는 어른의 머리보다 더 크다. 2월부터 무려 6개월을 말리는데 쇠뿔치만큼 단단하게 마른다. 기름기가 없고 살이 단단한 이 생선을 어떻게 요리하는지는 모르지만 해놓은 음식은 별로 맛이 없었다.

언제나 그랬듯이 이번 노르웨이 출사도 방효신(약대 56) 형님과 함께였다. 둘다 상당한 나이의 여자이지만 의기투합하여 떠난다.

LA에서 로포텐까지 장장 22시간, 비행기를 네번 갈아 타야 한다. 마지막 비행기는 프로펠러기로 낮게 천천히 가야 하는데 환승시간이 짧아 놓칠뻔 했다. 다행히(?) 비행기가 프로펠러 고장으로 지연되는 바람에 탈 수 있었다. 진눈깨비가 내리는 공항에서 택시를 타고 숙소까지 또 30분. 여행은 분명 마음 설레고 신나는 일이긴 한데 몸이 힘들다.

로르부(Rorbu)란 옛 어부들의 숙소를 현대식으로 개조하여 빌려 주는 곳인데 아주 소박한 싱글베드와 미니멈 부엌이 딸린, 동화책이나 나오는 빨간집에 우리는 목게 되었다. 값은 과히 비싸지는 않고 발코니에 나오면 바로 바다가 보이는 곳이었다.

일주일 출사하는 동안 날씨는 매일 흐리고, 비 오고, 눈 오고, 바람 불고... 간간이 구름이 깨어진 속으로 해가 비치면 산천의 경치가 그야말로 눈이 시리게 아름답다. 어떤 봉오리는 바닷가에, 어떤 봉오리는 이어져 계곡이 되고 그런가하면 또 바닷물이 이어지고...

높이 올라간 눈 쌓인 산봉오리가 푸른

하늘을 배경으로 도도히 서있다. 그 봉오리를 마주하고 사진을 찍는 대신 하염없이 올려다 보고 있자니 눈물이 핑 돌았다. 아름다운 것을 보고 눈물을 흘리는 것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일일 것이다. 이런 경치를 그냥 아름답다고 말하면 그것은 자연 모독죄가 될 것 같다.

로포텐은 바람의 고장이다. 그냥 바람이 아니고 강풍에 돌풍이 분다. 모든것을 날려 보낸다.

사진작가는 비 오면 비를 찍고 바람 불면 바람을 찍는다고 했는데 몰아치는 파도는 과연 바람의 흔적인가. 바람에 날아간 내 몸은 서너발짝 밖으로 나가 떨어졌는데 아픈 무릎을 끌고 난 다시 카메라에 매달린다.

저 절경을 제대로 표현해 낼 수없는 둔탁한 재주가 짜증난다.

달력을 보니 어느새 나흘이 지났고 난 초초하다. 이제 사진 제대로 찍을 날은 이를 남았는데 오늘은 아침부터 함박눈이 강풍을 동반하여 불어 제긴다. 저녁 해넘어갈 즈음에 '함노이 야경'을 찍기로 했는데.



생대구는 서너살 먹은 아이 만큼이나 크다. 무려 6개월을 말리는데 그 머리는 어른의 머리보다 더 크다.

눈은 그치질 않고, 야경 찍을 다리 위에 도착하니 바람이 너무 불어 속수무책이다.

다리 난간에다 카메라를 끼워 넣고 흔들리지 않게 하려고 안간힘을 쓴다. 초점 맞추고 카메라 세팅하고 언 손으로 난간에 매달리며 내 작은 몸으로도 바람을 막아 보기도 하지만, 20초의 셔터스피드를 지켜낼 수 없다. 자연은 나보다 월등한 힘으로 상황을 제압하고 만다.

싸우고 싸워서 겨우 한장 건진 '함노이 야경' 사진. 로포텐 찍는 사람이면 누구나 찍는 사진이라서 가볍게 생각하고 갔는데 그 누구나 찍는 사진 한장 건지기가 이리 어려울줄이야. 그래서 자연은 나에게 또 겸손을 가르친다.

길었지만 짧은 일정, 아쉬운 성과. 내가 여기를 다시 올 수 있을까?

그래 꼭 다시 올거야 다짐조차 허망한 나의 상황이. 늙어도 젊게 살겠다면 기개는 어디가고 왜 한숨이 나오는걸까?

돌아 오는 비행기에서 그 산천과 작별을 했다. 비로소 감사한 마음으로.



로포텐은 대구어업의 중심지다. 곳곳에 강원도 황태 덕장처럼 차가운 겨울바람에 대구 말리는 곳이 많이 보인다. 그런데도 마을 곳곳이 포토존이나 다름없을 만큼 아름답다.

“살암시민 살아진다”



장동만
문리대 55

인터넷 서핑을 하다가 재미있기도 하고, 많은 것을 생각해 하는 제주도 방언이 눈에 띄었다. “살암시민 살아진다.” 제주 어르신들이 흔히 쓰는 말이라고 한다. 표준말로 옮기면 “살다보면 살아진다”라는데, 내 생각으로 “살다보면...” 보단 “살았으니 살아진다”가 그 본래의 뜻에 더욱 가까울 것 같다.

물속에서 숨이 넘어가는 고통을 참으면서 버티는 해녀들의 고달픈 삶, 물에 나와 한숨 돌리며 “내몸 움직여 밥지어 먹고, 잠만 잘 수 있으면 ‘살암시민 다 살아진다’”고 푸념을 한다고 한다.

사람 사는 모습을 형언하는 말이 참 많다. 우선 “잘산다, 못산다” 돈의 많고

적음, 주로 경제적 측면에서 보는 관점이다. “복 받은 삶, 복 없는 삶” 돈 있고, 건강하고, 자손 잘 두고, 부러울 것 없는 복된 삶이다. 그런가 하면 “죽지못해 산다”는 말도 있다. 그런 복이 없는 사람들의 비관적인 자탄이다.

여기서 제주 해녀들의 “살암시민 살아진다”를 다시 곱씹어 보게 된다. 그렇게 물 속에서 죽을 듯 살 듯 생사를 넘나 들며 살아가는 삶, 하루 하루 지내다 보니 그래도 세월은 흐르고 나는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어떻게 보면 숙명을 즐기며 끌어안는 해녀들의 체념 섞인 삶의 목소리다. 우리에게 무엇인가 암시하는 바가 있을 것 같다.



“살암시민 살아진다”, 여생이 얼마 남지 않은 우리 노년들의 경우에 이 말을 한 번 대입해 보자. ‘살다’는 그 어원이 ‘사르다(불로 태워 없애다)’란다. 무엇을 불태워 없앤다는 말인가?

그 심오한 뜻은 모르겠고, 그냥 상식적으로 해석해 보면 삶의 시간을 정열을 쏟아 불사름으로써 그 무엇(?)을 이룩하는 것, 그것이 곧 ‘산다, 살다’는 뜻이 아닌가 싶다.

그러면 이제 ‘한쪽 발을 무덤에 걸친(One Foot in the Grave) 우리

노년들이 시간을 불태울 수 있는 대상이 무엇이 있을 것인가? 그 대상이 없다면 ‘산다, 살다’라고 말 할 수도 없지

않은가?

루소는 말한다. “산다는 것은 그저 숨만 쉬는 것이 아니다, 활동하는 것이다 (To live is not to breathe, but to act)”.

우리는 지금 하루 밥 세끼를 먹고 숨을 쉬고 있다. 그런데 활동(action)은? 젊은 세대들이 밥만 축내는 ‘식충(食蟲) 켄대’라고 막말을 쏟아내도 반박할 건 더기가 있을 것 같지 않다.

고 함석헌 선생님은 ‘겉살림(외면 생활)’, ‘속살림(내면 생활)’을 자주 말씀하셨다. “사람이란 ‘속살림’을 해야 하느니라” 젊었을 때는 “그렇지, 그렇게 살아야지”, ‘속살림’을 하려 많은 노력을 했다. 그런데 이제 ‘겉살림’ 외부활동도 없고, ‘속살림’ 또한 골이 텅텅 비어 알맹이 없는 ‘속빈 강정’이 되어 가니... 오늘 하루도 “살암시민 살아진다” “숨을 쉬니 살고 있다”를 뇌까리게 된다.

*뉴욕에 거주하는 장 동문은 최근 100편의 ‘장동만의 죽음학 오디세이’를 묶어 ‘살아가며 죽어가며’란 책으로 출간했다.

공대생 아내가 드리는 글



송정원
사대 61

공대 하면 우선 태능의 배밭을 떠올리게 된다. 그런데 우리 집의 공대생은 태능의 배밭이란 틀린 말이고 신공덕동에 공대가 있었고 신공덕동 배밭이 옳다고 주장한다.

‘태능이나, 신공덕동이나’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 어쨌든 나는 대학시절 공대생을 사귀적도 없었고 또 사귀고 싶은 마음도 없었다.

잔 키츠의 ‘엔디미온(Endymion)’을 읽고, 괴테의 ‘미농의 노래’를 암송하면서 캠퍼스를 휘젓고 다니던 문과 여학생들에게 공대라는 이름이 주는 인상은 너무나 현실적이었고 생활적이었으며 또 비낭만적이었다.

그런데 미국대학으로 유학을 와보니 그림이 달랐다. 우선 숫

자적으로 공대출신들이 압도적으로 많았고 몇 사람 되지 않은 여학생들에게 친절할 줄 알았고 기숙사 식당에서 유머감각을 발휘하는 것을 경험도 했다.

곡절 끝에 그런 공대생의 아내가 되어 52년을 해로하고 있으니 운명이란 분명히 제 몫을 하고 있다 보다.

이 글은 남가주 서울 공대 50주년 역사 편찬과는 무관하다. 일상 그렇듯이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마지막 순간 아내에게 떠미는 공대생 남편의 뒷에 내가 걸려들어 도리없이 쓰게 된 것이다. 남 더러 써달라고 부탁하고 사정하더니 마음에 들지 않는지 이제 자기가 쓰겠다고 한다. 아마 두개의 수필이 탄생될지 모른다.

공대생 남편들은 참 부지런하다고 들었다. 우리집 공대생도 대단히 부지런하시다. 예외없이 큰일은 모두 해 낸다.

이들테면 찬란한 아침해가 동쪽에서 떠올라 저녁때면 어김없이 서쪽으로 지

게 하는 것도 그가 하는 일이다. 그가 하는 큰 일이다.

그는 작은 일도 많이 해치운다. 벽에 그림을 정확한 높이와 간격으로 걸어서 집을 화랑처럼 만들어 놓지 않나, 그런데 자기가 하는 방식만이 옳은 방식이라고 번번히 고집하는 버릇을 지니고 있다. 설마 하니 서울대 공대에서 그렇게 가르쳤겠는가. 과학적으로 생각하라, 이치가 이렇고 저렇고...

과학적이고 공대적인 잔소리를 많이 하는 것도 특기 중의 하나다. 치밀하다는 것과 일일이 지적하고 비판하는 것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배울 수는 없는가. 이슈를 만드는 일은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배울 수는 없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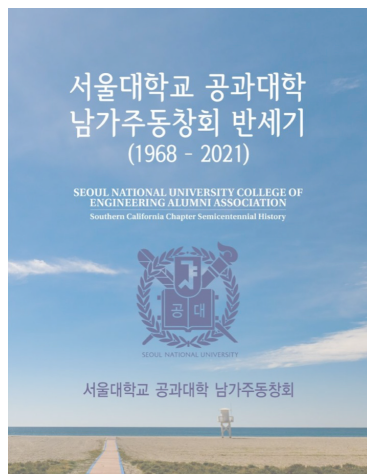
나는 완벽한 서울대 공대생, 완벽한 인간상을 아직도 꿈꾸고 있는 모양이다. 그 옳은 잔소리. 옳지만 잔소리는 잔소리다. 잔소리는 우선 듣기 싫다는 것

을 이해 못하는 공대생의 탁월한 두뇌에 나는 감탄한다. 그것은 또한 나를 괴곤하게 만든다. 가끔은, 아, “아름다운 사물은 영원한 기쁨”이라 읊은 잔 키츠를 생각한다.

“그대는 아는가 저 남쪽 나라를, 황금빛 오렌지는 진한 초록색 속에서 빛나고, 푸르른 하늘 아래 산들바람이 불어오는 그곳 ~ 월계수가 높이 서있는, 그대는 아는가 그 나라를. 사랑하는 이여, 당신과 함께 그곳에 가고 싶어요...”

슬프고 아름다운 ‘미농의 노래’를 쓴, 요한 볼프강 폰 괴테를 다시 읽으리라. 비과학적이고, 지극히 비공대적인 그런 시간이 그리워질 때 나는 이들에게서 안식을 구하리라.

공대생과 결혼한 것을 축복으로 알고 가문의 영광으로 알아야 한다고 그는 나를 꼬신다. 이쯤되면 공대생 남편의 배짱있는 그 겸손함에 감탄, 다시 감탄. 50년의 세월이여, 서울대 공대생에게 바친 내 청춘이여, 내 인생이여!





강미자
음대 61
소프라노

어린 시절 피난길에 큰언니를 잃어버린 생이별의 아픔이 지금껏 가슴속에 남아있다. 더군다나 피난 생활 중에 홍역을 앓다 살아나지 못한 동생의 죽음이 조그만 어린 가슴에 기쁨보다는 슬픔을 먼저 알게 했고, 아마도 그것은 세상에 태어나 처음으로 슬픈 감정이 어떤 것인지를 느끼게 했던 것 같다.

그때부터 난 웃음을 잃어버린 심각한 아이가 되어버렸고, 가끔 여름밤엔 하늘의 별을 쳐다보며 언니별과 동생별의 이름을 지어보곤 했다. 무언가 슬픈 멜로디를 머릿속에 지어보면서 불려보기도 했다.

나의 초등학교 시절은 지금도

기차구경을 할 수 없는 강원도 광산촌에서 보냈다. 겁 없이 서울로 유학(?)온 나는 감리교 신학대학의 선교사들이 경영하는 기숙사에서 중학시절을 시작했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지방 목사님의 자녀들이었고, 마치 어느 영화의 수녀원 생활을 연상시키듯 식사시간과 취침시간, 그리고 예배시간의 종소리를 들으며 나의 학창시절을 시작했었다. 지금도 가끔 비슷한 종소리를 들을 때면 그때의 향수에 젖곤 한다.

중학교 1학년이었을 때가 기억되는데, 한방에 있던 상급생 언니의 책 '안네의 일기'를 읽게 되었다. 나는 너무나 감동했었고 바로 나 자신의 감수성이 안네의 감수성과 일치하는 듯한 착각 속에 그를 몹시 사랑한 기억이 있다. 그 덕분에 책 읽는 즐거움을 알게 되었고 우연히 안네 프랑크의 사진이나 기사를 보게 될 때면 아직도 남다른 흥분을 느끼기도 한다.

무엇 때문인지 나 자신을 슬픈 아이로 생각하기를 좋아했고, 그런 관념 속에서 자라왔던 것 같다. 그런 것들이 원인 이어선지, 아니면 선천적이기도 한 때문인지 나의 음악은 밝고 명랑한 쪽보다 극단적으로 슬프고 어두운 쪽을 더 좋아하게 되었다. 지금도 나는 쇼팽이

음악과 나의 인생

나 차이콥스키, 리스트, 푸치니의 음악을 더 사랑하고 있다.

내 마음속엔 늘 싸워야 하는 두 개의 갈등이 있다. 예술의 아름다움에 강하게 감동해 버리는 열정과 안이하고픈 게으름의 유혹과... 많은 연주가들의 연주를 감상할 때면 난 언제나 보이지 않는 그들의 고독을 상상해 본다. 무대 위에서 화려함 뒤에 그들의 엄청난 노력과 투쟁을. 매일 매일 많은 시간의 연습과정은 세상의 편안함과 싸움이기도 하다.

나는 결혼 후 오랜 세월을 음악과 등지고 산 적이 있다. 음악가의 고된 길이 두려워서인지, 나 자신의 부족함을 너무 일찍 깨달았던지, 아무튼 쉽게 음악을 포기하고 평범한 여자의 삶을 택했었다. 여자로서의 소소한 허영과 편안함을 만끽하면서 쉽게 쉽게, 하루하루를 살았던 것 같다.

그러던 어느날 라디오에서 흘러나온 어느 오페라의 한 아름다운 아리아의 선율이 그동안 숨겨놔던 또다른 감각들을 자극시켰고, 그와 같은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고 싶은 간절함이 다시 어려운 음악의 길을 걷게 만들었다.

그 이후 나의 삶은 음악과 더불어 걸어가고 있다. 명성과 결과만을 생각하기엔 난, 조금은 철이든 나이가 되어버

렸고, 나의 모습을 초라하게 볼 줄도 아는 겸손도 세월이 길러준 것 같다. 그저 다만 내 속에 쌓인 슬픈 생각들과 나의 참다운 모습을 음악으로, 노래로 표현할 수 있다는 희열 때문에 가끔 감사한 마음을 갖기도 하고, 행복해하기도 한다. 음악을 통한 나의 생활에서 노력의 과정에서 나는 남은 나의 인생을 완성시키며 살아가리라.

슬픔을 느끼는 순간에 가끔은 야릇한 아름다움이 있어 보이기도 하고, 아름다움을 느끼는 순간에 슬픔을 느끼기도 함은 나의 지나친 취향 때문만일까. 오늘도 좀 더 완성된 노래를 부르기 위해 피아노 앞에 앉아본다. 진정한 예술인이란 인간의 희·로·애·락의 감정을 가장 높은 차원으로 승화시켜 남에게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진리를 다시 한번 새겨보면서.

▲줄리아드 음대

▲뉴욕 카네기홀 데뷔

▲런던심포니 등 세계 주요 오케스트라와 공연

▲UCLA 방문교수

박용필의 미국인 이야기

“난 CME입니다. 믿어주세요.” 15년 전 이맘때 쯤의 상원 법사위 인사청문회. 의원들의 거센 공격에 당황한 나머지 영겁결에 이런 말을 쏟아냈다.

장본인은 소니아 마리아 소토마요. 히스패닉계 최초로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 의해 연방 대법관에 지명된 여성이다. 또 다른 기록은 그의 나이이다. 당시 55세로 청문회를 통과하면 최연소 대법관의 영예도 함께 누리게 될 터. 그런데 종교가 걸림돌이 될 줄이야.

대법원장부터 줄줄이 가톨릭 신자여서 논란이 불거졌다. 공교롭게도 당시 대법원엔 개신교 신자가 한 명도 없었다. 소토마요가 인준을 받으면 대법관 9명 가운데 가톨릭은 6명, 유대교 3명이 된다. 미국은 개신교의 나라인데도. (나중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닐 고서치가 청문회를 통과해 미국

은 10년 만에 첫 개신교 신자 대법관이 탄생하는 ‘경사’를 맞았다.)

가톨릭은 예나 지금이나 정치권에선 보수로 간주된다. 당연히 진보성향의 민주당 의원들이 태클을 걸었다. 의원들의 거듭된 추궁에 소토마요는 급기야 자신이 ‘CME’라고 털어놨다. CME는 크리스마스(C)와 마더스데이(M) 그리고 이스터(E)의 첫 글자를 따 만든 신조어. 1년에 딱 세 번만 교회에 나간다는 뜻이어서 한마디로 ‘나이롱 신자’다.

의원들 사이에서 폭소가 터져 나왔다. CME가 소토마요를 위기에서 살려냈다고 해야 할지. 어쨌거나 청문회를 무사히 통과해 대법관이 될 수 있었다. 소토마요 덕분인지 CME는 그해 최고의 유행어로 났고.

정말 소토마요는 ‘나이롱’일까. 그의 부모는 푸에르토리코 출신의 이민자다. 뉴욕서 태어난 소토마요는 초중고 모두 가톨릭 스쿨을 나왔다. 결혼도 성당에서 올렸으니 따지고 보면 모태신앙의 전형적인 케이스다. 그런데도 자신의 신앙심을 예들러 평가절하했으니...

부활절의 ‘CME’ 신자

어렸을 적 그의 희망은 경찰 수사관이 었다. 그런데 소아당뇨 진단이 나와 평생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했다. 범죄인과 몸싸움을 벌여야 하는 경찰관으로서 는 결격사유가 될 수 밖에. 할수없이 변호사로 진로를 틀었다. 프린스턴과 예일대 로스쿨을 나온 소토마요는 이 세상 모든 법조인의 꿈인 대법관이 된 것이다.

요즘은 CME마저 벼찬 신자들이 적지 않은 모양이다. ‘크리스터(Chreaster)’란 우스개가 생겨난 것만 봐도 그렇고. 크리스마스와 이스터를 합성한 말이다. 마더스 데이를 쏙 빼먹고 성탄절과 부활절만 달랑 두 번 출석하는 신자. 나이롱도 이런 나이롱이 없겠다. ‘크리스터’도 기독교신자여서 이들을 일컬어 ‘크리스천(Chreastian)’이라 비아냥거리기도 한다.

소토마요도 정확히 말하면 ‘크리스천’에 속한다. 나중에 크리스마스와 이스터에만 교회에 나간다면 자신의 청문회 발언을 정정했기 때문. 오죽 대법관이 되고 싶었으면... 쓴웃음이 절로 나

온다.

심지어 최고경영자에 빗대 CEO란 말도 생겨났다. ‘크리스마스 & 이스터 온리(Christams & Easter Only)’의 약자라나.

성탄절과 마더스데이, 이스터 셋 중 신자들의 출석이가 가장 많은 건 어느 날일까. 몇 해 전 라이프웨이 리서치가 1000명의 성직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다.

마더스데이가 60%로 가장 낮았으며 이어 성탄절(84%), 이스터(93%) 순으로 나타났다. 부활절이 가장 높게 나온 걸 보면 역시 기독교의 최대 축제는 크리스마스가 아닌 이스터임을 알 수 있겠다.

부활절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CME면 어쩔고 또 CEO면 어떠랴. 그동안 교회를 멀리했거나 냉담을 했다면 이번 기회에 풀타임 신자가 되는 것도 좋겠다.

참, 소토마요 대법관이 이번 주말 교회에 가는지 확인해 보는 것도 흥미롭겠다. **<편집고문>**



박 변의 영화 내멋대로 보기

An Eye For Beauty

“홍행에선 대참패, 그럼에도 내가 이 영화를 3번이나 본 이유는...”

An Eye For Beauty가 무슨 뜻인지 를 아시는지? 아름다움을 알아 보는 특별한 재능을 말하는데, 지금 얘기할 이 영화의 감독이 바로 그러한 재능이 있다.

이 영화의 감독은 드니 아흐강(Denys Arcand). 지난 2004년에 아카데미상 외국어 영화부문에서 수상을 한 감독이다. 그래서 재능이 없다고는 할 수 없는 감독이지만, 이 영화만큼은 뭔가 많이 부족하다.

주인공은 잘 나가는 캐나다의 젊은 건축가. 프랑스어 지역인 퀘벡(Quebec)의 그림 같은 집에서, 학교 축구 선생으로 일하는 매력적인 아내와 함께 산다.

친구들도 좋고, 취미 활동은 철마다 맞춰 안 하는게 없는 부부. 골프, 스키, 사냥, 아이스하키, 테니스, 보트 타기, 그리고 마리화나까지. 와인을 겸한 저녁 식사는 당연한 것이고. 골프 도중에 아내와 그녀의 동성 애인은 나무 아래에서 키스까지도 나눈다. 가히 취미 영화인지 다른 영화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이다.

일견 완벽한 행복한 삶이다. 단 하나(?)의 문제는 이 아내가 우울증에 빠져 있다는 것. 이렇게도 즐거운 삶인데 왜 아내는 우울증인지 영화는 아무런 설명이 없다. 설명을 꼭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리고 그런 것하고 관계없이 우울증은 누구한테나 찾아 올 수 있는 것이긴 하지만 말이다.

그런 와중에 이 주인공이 캐나다 토론토로 출장을 가는데 거기서 예쁜 젊은 여자를 만나 바람을 피우게 된다.

너무나 그들은 쉽게, 여자의 집이 있는 섬으로 가서 하룻밤을 같이 보내게 되는데... 이 영화의 모든 장면은 그저 아름답기만 하다.

그녀의 집이 있는 토론토의 섬, 강을 건너 페리를 타고 가는데 배경인 토론토는 낮이건 밤이건 너무나 아름답다.

그리고 하룻밤의 일로 끝

이 나가는 했더니 이 여인이 그가 사는 퀘벡으로 찾아온다. 주인공은 그녀를 만나러 나가고... 그 사이 그의 아내는 우울의 늪에 빠진 나머지 총을 들고 자살을 생각해 본다. 주인공은 위험한 눈길을 운전해서 집으로 돌아 온다.

어떤 기승전결을 지닌 스토리 위주의 영화가 아니기에 뭐 이렇다 할 결론을 영화는 주지 않는다. 전체적으로 도대체 영화가 무엇을 얘기하고자 한 것인지 알기도 힘들다.

모든 것을 다 가진, 잘 나가는 젊은 사람들도 다 문제가 있고 고민이 있다는 것이 굳이 주제라고 하면 주제일까? 바로 이런 이유로 비평가들이 이 영화에 대해 혹평을 하고 있다.

홍행에서도 대참패를 했다. 전 세계에서 거두어 들인 수익이 고작 5만 달러에 불과하다.

제작비는 알려진 게 없으나, 영화 한편 제작이 5만 달러로는 어렵도 없는 소리이니 몇백만 달러는 우습게 잃지 않았나 싶다.

그러나 나는 꼭 주제이니 메시지니

하는 이런 것에 매달려야 하나 하는 생각을 한다. 영화는 꼭 그런 것만으로 즐겨야 하는 것이 아니기에. 그래서 모든 혹평에도 불구하고 관객들은 한 가지 만큼은 즐길 수가 있다.

바로 이 감독의 아름다움에 대한 특별한 재능 때문인데, 영화는 우리가 흔하게 접하지 못하는 캐나다 동부의 아름다운 풍광들로 가득 차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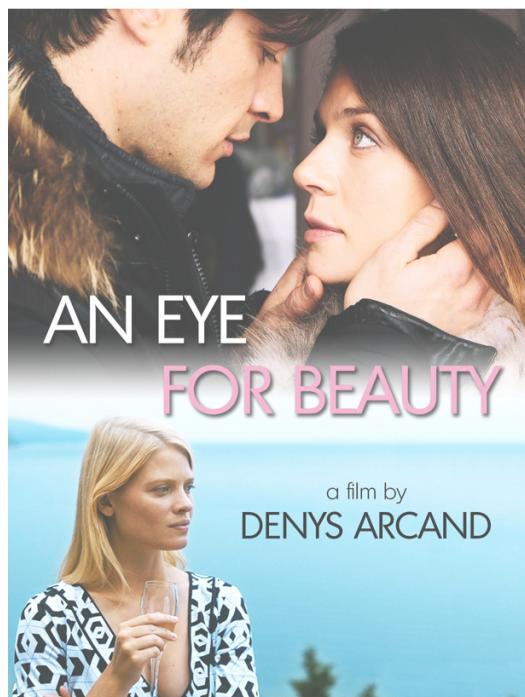
다른 모든 것들 잊어 버리고, 그저 아름다운 장면과 그들의 다양한 취미 활동을 보는 재미로 이 영화를 즐기라고 권해 드리고 싶다(극히 노골적이지는 않지만 신체 노출이 많다는 점도 감안하시고).

영화에서 이런 대사가 나온다. 주인공이 프리젠테이션을 하면서 건축관계 사람들을 앞에 앉혀놓고 하는 말인데, “Ugliness is a crime against humanity(추함은 인간성에 대한 범죄이죠).” 주인공 말대로 이 영화는 오직 눈을 즐겁게 해주는 아름다움으로 가득 찬 영화다.

그 외 이 영화는 그리 얘기할 것이 없다. 그저 봐야만 느낄 수 있는 영화다.

그냥 아름다운 캐나다의 경치와 젊은 부자들의 다양한 취미 활동, 그런 것들을 즐기자 한다면 1시간 40분 정도 상영 시간이 그리 지루하거나 길지 않다. 그래서 엄청난 결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영화를 3번이나 봤다.

박준창(인문대 79 · 변호사)



주인공 립과 그의 바람의 상대 립지. 2014년 개봉한 영화는 전 세계에서 고작 5만 달러를 벌어들여 홍행에서는 대참패했으나 눈을 즐겁게 해주는 아름다움으로 가득 차 있다.

www.yongsusanla.com



개성요리 · 궁중요리 전문점

용수산 YONG SU SAN
traditional korean cuisine

Tel : 213. 388. 3042

Mon thru Sun 11:30am ~ 10pm

950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6

여자농구부 SUN

“세상에, 서울대 여자농구가 이렇게 셋어?”

연세대 꺾고 2연속 챔피언십 우승 일귀내

수업 ‘올 출석’ 주 2회 훈련, 1회 경기 소화

모교 여자농구부 SUN(이하 썬)에게 지난해는 특별한 해였다. 11월 12일 강원도 횡성에서 열린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 (KUSF) 클럽챔피언십 여자농구 결승에서 연세대 여자농구부 ‘미쓰비’를 꺾었다. 2년 연속 우승이다. 처음으로 코치도 생겼다.

이제야 ‘드림팀’이 된 것 같다는 썬을 만났다. 대회 주전이었던 이래은(체육교육), 김나연(수학교육), 김예은(조소), 전예지(체육교육), 정승윤(자유전공·주장)씨가 몸을 풀다 반갑게 맞이했다.

썬은 원래 강팀이 아니었다. 훈련은 열심히 했지만, “한 두명만 빠져도 흔들리던, 기복 심한 팀”이었다. 변화가 생긴 것은 지난 여름. MBC배 전국대학농구 여대부에 초청 받아 출전하게 되자 한국여자프로농구 연맹이 선수출신 지도자인 이종애 코치를 파견했다. “그전엔 저희가 코치 겸 주장겸 선수였어요. 돈내고 스킬트레이닝을 배우기도 했지만 효율적이진 않았죠. 코치님께서 거의 원포인트 레슨을 해주셨어요. 슈팅도 다 바꿨어요.”

(전예지) 공부와 병행하면서도 주 2회 훈련과 토요일 연습경기에 거의 ‘올 출석’하니 가르치는 사람도 신명나지 않을 수 없었다. “주전들을 훈련시키는 동안 코치님께서 데려오신 선수출신 친구분이 신입생들을 봐주셨다.

덕분에 팀원들의 기량이 고루 향상됐다”고 했다. “전엔 같이 뛰는 팀원을 가르치는게 조심스러웠는데, 믿을 수 있는 어른이 생기면서 코치님을 중심으로 팀이 하나가 될 수 있었어요. 팀원들끼리도 더 돈독해진 것 같아요.” (김예은)

팀 스포츠를 좋아하는 여학생은 ‘운

동단절기’를 겪곤 한다. 어릴 땐 남학생과 섞여 운동해도, 자라면서 같이 할 사람이 없어지는 탓이다. 전예지씨와

김예은씨는 어릴적 농구를 접했다가 대학에 들어와서 다시 시작했다. 2020년 들어온 김나연씨는 “코로나 때 유일하게 활동한 게 농구부였다”며 웃었다. 체육관 문이 닫히면 썬은 남양주, 김포까지 가서 빈 코트를 빌렸다. 인원제한이 생기면 두 명씩 교대로 나와 어떻게든 연습량을 채웠다.

전예지씨는 “인강강사처럼 유튜브에 이번 주 연습 째어서 올리면 애들이 ‘인증 영상’을 찍어 올리는 식으로도 연습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왜 그리 농구가 좋을까. “24초라는 공격제한 시간내에 무얼 할 지가 매번 미지수라 재밌다”(김나연), “좁은 코트에서 격하게 몸을 부딪히며 긴장감 속에 해내는 희열이 있다. 블록 찍고, 리바운드 잡고, 출점도 하기 시작하면서 끊임없이 재밌는 요소가 생긴다”(정승윤)는 답이 돌아왔다. 차기 주장인 이래은씨는 “내가 못해도 다른 사람이 채워 주는 팀스포츠가 좋다. 그

중에서도 농구가 멋있었다”고 했다.

“좁은 코트 위에서 부딪히고 얼굴 붉히다 보면 ‘성격 대로 농구한다’는 느낌이거든요. 세상의 단편을 코트 안에서 볼 수 있어요.” 농구광인이라는 팀원들의 놀림 속에 김예은씨가 고심해서 내놓은 답이다.

이전에도 모교에 ‘라바’라는 이름의 여자농구부가 있었다. 2020년 썬으로 일종의 재창단을 했고, 팬데믹까지 겪으면서 선수배 교류가 끊겼다. 팀 기금이 축적될리 없으니 사비를 털어 활동하는 형편. 학교에서 받는 지원금은 한

두 번 대회 출전비로 바닥나는 정도다.

그런데 이들이 “꼭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선배님들이 계신다”며 말을 꺼냈다. “얼마 전에 ‘라바’를 만드셨다는 오세임(성악 11) 선배님이 저희 우승 소식을 듣고 고생했다며 회식비를 보내주셨어요. 얼굴도 한번 못 뵈는 선배님인데 정말 감사했죠. 상주 MBC 대회에 초청받았을 때도 교통비와 숙박비가 부담스러워 망설였는데, WKBL에서 영상 관련 일을 하시는 맑은기술연구소의 강승표(기계공학 94)

심연섭(기계항공공학 95) 동문님의 지원으로 나갈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했어요.”

인터뷰 중 코트 한쪽에선 신입생들이 별다른 지시 없이 알아서 연습을 했다. 난생처음 농구공을 잡아도 한두달 훈련하면 레이업은 할줄 알게 된다고 했다. “한때 대회 엔트리도 겨우 채웠는데 이젠 신입생끼리 연습 경기도 가능하다. 체격조건 안보고 다 받아도 주3회 훈련을 소화하다 보면 저절로 소수정예가 된다”며 웃음지었다.

인터뷰를 마친 부원들이 연습에 합류하자 코트는 더욱 달아올랐다. ‘서울대파이팅’을 외치며 전력 질주하던니 블로킹과 슈팅 스텝, 슈팅 연습이 폭풍같이 몰아쳤다. 자유투 연습으로 한 턴을 마무리한 이들이 땀범벅이 되어 돌아왔다.

“코치님이 그러셨어요. 올라가는 건 어려운 데 내려가는 건 진짜 쉽다고요. 확실히 저희 멘탈이 강해진 것 같아요. 상대팀이 저희를 흔드는 행동을 해도 이번엔 밀리지 않았거든요. 다같이 열심히 해서 성장했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한명에게 의존하지 않고 정말 찬스인 사람에게 공을 주게 됐고요. 열심히 닦아봤으니까 앞으로도 이런 분위기와 문화가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말해도 되나’ 머뭇거리던 이들이 ‘그냥 지르자’며 뜻밖의 야심찬 계획을 꺼냈다. “사실 금년 9월에 저희가 서울대에서 여자 대학농구 대회를 열어보려고 해요. 후원이 많이 필요해서 지금부터 이곳저곳 알아보고 있습니다. 어렵겠지만 말을 뱉어야 진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선배님들의 관심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연락처: jsy22@snu.ac.kr

신설 역사학부, 경쟁률 4.40대 1

국사학 · 동양사학 · 서양사학 통합

음악학과는 미래지향적 학문융합

모교 정시모집 최종 경쟁률이 3.18 대 1을 기록했다. 일반전형은 3.22 대 1의 경쟁률, 올해 신설된 지역균형전형 경쟁률은 2.85 대 1이었다.

1345명을 모집하는 데 4282명이 지원해 4.13 대 1이었던 전년도 정시 경쟁률보다 하 락했다. 올해 정시 선발인원은 지난해 1037명에서 300여 명 늘어났지만 지원자는 예년과 비슷했다.

이번 정시모집은 전형과 모집 단위, 평가 방법 등에 변화가 있었다. 모교는 올해 정시 일반전형에서 수능성적외에 학교 내신성적을 반영하는 교과평가를

처음 실시했다. 수시모집에만 있던 지역균형전형도 신설했다.

지역균형전형은 수시 지역균형전형과 동일하게 학교별로 2명을 추천할 수 있고 수능 60점, 교과평가 40점을 반영하는 전형이다.

올해 신설된 공 대 광역, 인문대학 인문계열, 사회대 정치외교학부, 경제학부, 인류학과, 약학대학 약학계열, 의과대학 의예과, 치의학대학원 치의학과가 지역균형 전형으로 입학생을 모집했다.

공과대학 광역은 정시 지역균형전형

으로만 46명을 모집하고 115명이 지원해 2.50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공과대학 광역으로 입학한 학생은 1학년 1학기가 지나면 항공우주공학과, 전기정보공학부, 컴퓨터공학부, 화학생물공학부, 산업공학과에서 전공을 선택할 수 있다.

국사학과, 동양사학과, 서양사학과를 통합해 신설된 인문대학 역사학부는 정원 28명 중 10명을 정시모집 일반전형으로 모집했다. 44명이 지원해 4.40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역사학부는 앞서 수시모집 일반전

형에서도 9명 모집에 116명이 지원해 12.89 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수시 지역균형전형으로는 9명을 모집했다. 역사학부 입학생은 2학년부터 한국사학전공, 동양사학전공, 서양사학전공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된다.

올해 음대가 신설한 음악학과는 정시 일반전형으로 9명을 모집하는 데 34명이 지원했다.

음악사 등 이론 외에도 녹음과 영화음악, 게임음악 등 타 분야와 융합한 미래지향적 음악을 다루는 학과다.

www.snuuaa.org

서울대 미주동창회 CENTURY FOUNDATION

미주동창회 재정자립 모금 캠페인

후원해 주신 동문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리며 변함없는 사랑과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영원히 새겨질 나의 이름”
서울대 미주동창회 종신이사



서울대학교 미주동창회는 미국 내에서 최초의
면세 혜택을 승인받은, 26개 지부 및 미주지역
2만여 동문을 대표하는 유일한 기관입니다.

종신이사

다이아몬드이사 (\$100,000이상)

워싱턴주 -故고광선(공대57)

플래티넘이사 (\$50,000이상)

조지아 - 주중광(약대60)

조지아 - 허지영(문리66)

골드이사 (\$10,000이상)

남가주 - 김경숙(간호68)

남가주 - 김일영(의대65)

남가주 - 노명호(공대61)

남가주 - 박창규(약대59)

남가주 - 서치원(공대69)

남가주 - 성낙호(치대63)

남가주 - 심화섭(약대61)

남가주 - 이기준(법대54)

남가주 - 이병준(상대55)

남가주 - 이홍표(의대58)

남가주 - 한홍택(공대60)

남가주 - 벤자민 홍(문리53)

남가주 - 오드라 홍(음대70)

네바다 - 정상진(상대59)

뉴잉글랜드 - 박영철(농대64)

뉴잉글랜드 - 윤상래(수의62)

뉴잉글랜드 - 정선주(간호68)

뉴잉글랜드 - 최홍균(공대69)

북가주 - 김정희(음대56)

북가주 - 민병곤(공대65)

북가주 - 전해경(문리67)

시카고 - 이윤락(공대48)

워싱턴주 - 양남주(명예이사)

워싱턴DC - 이태영(법대60)

조지아 - 김현희(간호59)

코네티컷 - 오인석(법대58)

필라델피아 - 김영우(공대55)

실버이사 (\$5,000이상)

남가주 -故김원경(약대59)

남가주 - 김병연(공대68)

남가주 - 박종수(수의58)

남가주 - 이종도(공대66)

남가주 - 정재훈(공대64)

남가주 - 한귀희(미대68)

루지애나 - 강영빈(문리58)

워싱턴주 - 김재훈(공대72)

워싱턴DC - 남옥현(경영84)

조지아 - 김경숙(사대64)

조지아 - 김태형(의대57)

필라델피아 - 이만택(의대52)

필라델피아 - 신의석(공대53)

종신이사 (\$3,000이상)

남가주

故노재성(법대58)

故서영석(의대55)

故오재인(치대33)

故윤낙승(의대60)

강신용(사대73)

곽용길(문리59)

권기홍(의대60)

권봉성(문리64)

김기형(상대75)

김대중(의대70)

김동훈(의대71)

김보연(간호63)

김상찬(문리65)

김성호(법대64)

김수영(사대57)

김재영(농대62)

김정빈(공대66)

나두섭(의대66)

류재풍(법대60)

박명근(상대63)

박용필(문리66)

박원준(공대53)

박윤수(문리48)

방명진(공대73)

백만일(공대64)

서동영(사대60)

신건호(법대53)

신영찬(의대63)

심상은(상대54)

안병일(의대63)

오홍조(치대56)

이근원(공대67)

이명선(상대58)

이세열(사대57)

이승훈(상대74)

이청광(상대61)

임낙균(약대64)

임용오(의대57)

전경배(의대69)

전희택(의대58)

정동구(공대57)

정임현(간호72)

정철룡(의대55)

제영혜(가정71)

조용원(문리66)

조한원(의대57)

차민영(의대76)

차종환(사대54)

하기환(공대66)

한호동(공대58)

홍성선(약대72)

홍종화(약대74)

뉴욕

故김광호(문리62)

故한창섭(문리57)

강에드워드(사60)

고애자(음대57)

권영국(상대60)

김승호(공대71)

김종률(사대51)

김한중(의대56)

김해암(의대52)

배정희(사대54)

서영숙(간호67)

석창호(의대66)

신응남(농대70)

윤종숙(약대66)

이강홍(상대60)

이기영(농대70)

이대영(문리64)

이재덕(법대60)

이재량(상대61)

이전구(농대60)

이준행(공대47)

이태호(상대58)

최수용(상대55)

최영태(문리67)

추재욱(의대57)

한태진(의대58)

허선행(의대58)

뉴잉글랜드

故고일석(보건69)

故박경민(의대53)

김광수(문리73)

고종성(사대75)

김문소(수의61)

김용구(공대66)

오세경(약대61)

윤선홍(치대64)

이의인(공대68)

전신의(문리57)

정정욱(의대60)

정태영(문리71)

조만연(상대58)

홍지복(간호70)

워싱턴DC

공순옥(간호66)

방은호(약대43)

박평일(농대69)

서희열(의대57)

오인환(문리63)

이내원(사대58)

이선구(문리65)

이윤주(상대63)

최지원(의대61)

미시간

故남상용(공대52)

장병진(공대61)

정태(의대57)

샌디에고

임천빈(문리61)

북가주

강재호(상대57)

손석보(공대68)

윤정옥(약대50)

한만섭(공대49)

시카고

강영국(수의67)

심상구(상대63)

이재희(치대67)

장윤일(공대60)

조봉완(법대53)

최의필(의대53)

한재은(의대59)

오레곤

김상순(상대67)

이은상(상대52)

미네소타

강연식(사대58)

권기현(사대53)

김권식(공대61)

김태환(의대58)

남세현(공대67)

민홍기(문리61)

변우진(인문81)

조형준(문리62)

황효숙(사대65)

휴스턴

박진섭(의대67)

오하이오

김용현(경원66)

이지우(의대68)

워싱턴주

故김영일(공53)

이명자(간호74)

이희백(의대55)

임현민(공대84)

조지아

김용건(문리48)

커네티컷

故유시영(문리68)

플로리다

김중권(의대63)

텍사스

박태우(공대64)

이광연(공대60)

조시호(문리59)

필라델피아

고병은(문리55)

김현영(수의58)

서종민(공대64)

손재욱(가정77)

신성식(공대56)

주기목(수의68)

하틀랜드

김경숙(가정70)

김명자(문리62)

김시근(공대72)

배규영(사대68)

오명순(가정69)

이교락(의대53)

이상강(의대70)

하와이

故최경윤(사대51)

이사 구분

다이아몬드 이사
\$100,000 이상

플래티넘 이사
\$50,000 이상

골드이사
\$10,000 이상

실버이사
\$5,000 이상

종신이사
\$3,000 이상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Association in the USA
2410 James M Wood Blvd. Los Angeles, CA 90006-2005 / 213-908-5586

www.snuuaa.org
news@snuuaa.org

남가주지역

마켓

Han Nam Chain Market

하기환(공대66)

213-381-3610

2740 W. Olympic Blvd., LA, CA 90006

변호사

한태호 변호사 법률 그룹

한태호(인문대 75) www.haanlaw.com

213-639-2900

3699 Wilshire Blvd., #860, LA, CA 90010

신혜원 변호사

신혜원(사대 81)

213-385-3773

3810 Wilshire Blvd. #1509, LA., CA. 90010

Law Office Of Kyung Hee Lee

이경희(인문대 83) imin@iminusa.net

213-385-4646

3435 Wilshire Blvd., #1110, LA, CA 90010

부동산

Team Sprit Realty

이종묘(간호대 69) jennieclee@gmail.com

714-396-0624

6301 Beach Blvd., #225, Buena Park, CA 90621

식품/음식점

자연나라

이승훈(상대 74)

562-633-7400

7212 Alondra Blvd., Paramount, CA 90723

해태 USA

정정우(수의대 74)

323-890-0101

7227 Telegraph Rd., Montevello, CA 90640

북창동 순두부

이태로(법대 50)

213-382-6660

3575 Wilshire Blvd., LA, CA 90010

병원

실로암병원

정균희(의대 64)

213-386-8602

2528 W. Olympic Blvd., #103, LA, CA 90006

동물병원

Van Buren Animal Hospital

오영문(수의대64)

951-687-2630

5535 Van Buren Blvd., Riverside, CA 92503

Animal Medical Clinic

신동국(수의 76)

714-990-1411

3257 Associated Rd., Fullerton, CA 92835

San Bernardo Foot Clinic Inc.

이상대(농대 80)

909-882-3800

2095 N. Waterman Ave., San Bernadino, CA 92404

Gilbert Drugs

최무식(약대 66)

714-638-8230

9240 Garden Grove Blvd., #20, Garden Grove, CA 92844

공인회계사

Kyung Moo Kim

(공대 69) kyungmookim@yahoo.com

(213) 616-1390

114 Washing Blvd., #C, Marina Del Ray, CA 90292

SHIN-YONG KANG CPA

강신용(사대 73) 공인회계사

(213) 380-3801

3850 Wilshire Blvd., #201, LA, CA 90010

Lee Kang Won CPA

이강원(인문대 76)

(213)387-1234

3600 Wilshire Blvd., #930, LA, CA 90010

GSK LLP

강호석(상대 81) cpa@hosukgangcpa.com

(213)380-5060 (LA, CA)

(714)530-3630 (Garden Grove, CA)

JUN CHANG

장 준(인문대 85)

(818)772-2811

11145 Tampa Ave., Suite 26A Northridge, CA 91326

임춘택 공인회계사

임춘택(상대 68) choontaklim@gmail.com

(213)380-4646

3700 Wilshire Blvd., #750, LA, CA 90010

기계 · 기술 · 전자

Link TV Media www.linkboxusa.com

김원탁(공대 65) linkboxusa@gmail.com

818-720-2373

24208 Park Athena, Calabasas, CA 90302

Tayco Engineering, Inc.

정재훈(공대 64) jchung@taycoeng.com

(714) 952-2240

10874 Hope St. PO Box 6034, Cyroess, CA 90630

자동차 · 서비스

A.P.W. 자동차부품

서동영(사대 60)

(310)753-9636

1073 E. Artesia Blvd., Carson, CA 90746

기타

ACCU Construction, Inc.

염동해(농대 74)

818-720-2373

2098 S. Grand Ave., Suite A, Santa Ana, CA 92705

뉴욕지역

리테일

New York Golf Center

이전구(농대 60) www.nycgolfcenter.com

131 W 35Th St., New York, NY 10001

212-564-2255

변호사

신응남 변호사

신응남(농대 70) petershinesq@gmail.com

718-463-3131

158-14 Northern Blvd. 2FI #UL-2 Flushing, NY 11358

금융

Edward Jones Investments-

윤의규(상대 82) edwarded.yun@edwardjones.com

201-978-7055

560 Sullivan Ave St 3270 Englewood Cliffs NJ 07632

병원

백승원 위장내과

백승원(의대 73)

201-302-9774

1608 Lemoine Ave., #200 Fort Lee, NJ 07024

석창호 위장내과

석창호(의대 66) changhsuk@aol.com

718-461-6212

41-61 Kissena Blvd., #27 Flushing, NY 11355

이창석 내과

이창석(의대 72) cleel34597@aol.com

718-762-4400

40-5 Browne St., Flushing, NY 11354

김해암 정신의학 전문의

김해암(의대 53) haeahm@aol.com

212-879-2322

230 East 73Rd Street St., 1A, New York, NY 10021

박범열 소아과

박범열(의대 75)

718-229-1188

211-50 45th Dr., Bayside, NY 11361

박종효 소아과

박종효(의대 79)

201-242-1002

44 Sylvan Ave., Englewood Cliffs, NJ 07632

Ridgefield Park Animal Hospital

김기택 (수의대 81)

201-814-0095

199 Main St., Ridgefield Park, NJ 07660

김치갑 통증병원

김치갑(의대 73)

201-541-1111

475 Grand Ave., Englewood, NJ 07631

Lic Hotel / 뉴욕스파 앤 사우나

김승호(공대 71)

718-463-0001

44-04 21St St., Queens, NY 11101

전미주 서울대 동문의 후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동창회를 이끌어가는 힘은 동문들의 격려와 후원입니다.

협회의 발전을 위해 힘을 모아 주십시오.



제16대 노명호 회장&임원 일동/서울대학교 미주동창회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Association in the USA

2410 James M Wood Blvd., Los Angeles CA 90006-2005

Tel: 213-908-5586 Email: snuausa30@gmail.com

보내주신 사랑 감사합니다.

동창회비 (제1차 회기: 2022.7.1 - 2023.6.30; 제2차 회기: 2023.7.1 - 2024.6.30) 볼드는 제 2차회기

남가주

강경수(법 58)
강동순(법 59)
강윤희(간 46)
강창만(의 58)
강호석(상 81)
강홍제(상 53)
고석규(치 65)
고윤석(공 62)
권기상(대 72)
권봉성(문 64)
김건진(문 62)
김경(문 63)
김경무(공 69)
김경수(사 54)
김경옥(미 61)
김광은(음 56)
김교복(농 63)
김국간(치 64)
김근(농 78)
김난영(공 53)
김동산(법 59)
김명숙(농 58)
김문엽(농 83)
김범수(문 61)
김병연(공 68)
김병완(공 58)
김상찬(문 65)
김석구(공 66)
김석홍(법 59)
김성건(공 56)
김성호(법 64)
김수향(간 68)
김순길(법 54)
김순자(치 57)
김영덕(법 58)
김영중(치 66)
김옥경(생 60)
김용채(문 61)
김원탁(공 65)
김원호(약 63)
김일영(의 65)
김은숙(미 62)
김정(치 59)
김정호(농 59)
김중범(상 64)
김중표(법 58)
김준일(공 62)
김재영(농 62)
김진식(공 66)
김창진(공 77)
김태환(문 78)
김항자(약 61)
김희성(음 00)
김학철(의 55)
김희창(공 64)
니두섭(의 66)
노명호(공 61)
니승욱(문 59)
류정순(생 69)
문경호(문 59)
문병길(문 61)
박명근(상 63)
박부강(사 64)
박상원(대 20)
박서규(법 56)
박영욱(사 55)
박용(문 89)
박용필(문 66)
박우선(공 57)
박원준(공 53)
박은숙(미 62)
박인수(농 64)
박인창(농 65)
박일우(의 70)
박임하(치 56)
박지경(생 60)
박정모(문 66)
박중수(수 58)
박찬호(농 63)
박창규(약 59)
박취서(약 60)
박혜욱(간 69)
박호현(의 52)
박홍근(공 64)
박희자(음 68)
방명진(공 73)
배동완(공 65)
백승호(치 55)
백혜란(미 70)
벤자민 홍(문 53)
서동영(사 60)
서명희(농 67)
서세진(음 62)
서의원(공 66)
서치원(공 69)
성낙호(치 63)
성주경(상 68)
손기용(의 55)
손학식(공 61)
송명국(문 81)
신건호(법 53)
신동국(수 76)
신영찬(의 63)
신정연(미 61)

심재호(공 75)
양승문(공 65)
양태준(상 56)
오윤표(음 56)
오선웅(의 63)
오찬수(약 57)
오형원(의 53)
원용민(공 58)
위종민(공 64)
유석홍(상 61)
유영자(음 63)
유이중(농 74)
유석환(치 55)
유준석(공 52)
육태식(의 61)
이덕승(의 54)
이성훈(법 55)
윤석철(상 60)
윤희성(치 65)
이강훈(치 65)
이건섭(치 54)
이건일(의 62)
이덕승(의 54)
이미정(의 78)
이방기(농 59)
이범수(문 61)
이범식(공 61)
이병성(공 74)
이서찬(문 65)
이성자(간 76)
이소희(의 61)
이영수(상 60)
이영현(간 70)
이용환(공 64)
이민익(문 73)
이원택(의 71)
이익삼(사 58)
이성길(치 63)
이재권(법 56)
이재룡(공 71)
이정근(사 60)
이정화(공 52)
이종모(간 69)
이준호(상 65)
이진영(의 65)
이창무(공 54)
이창신(법 57)
이채진(문 55)
이철광(상 61)
이해영(공 56)
이호(음 92)
이호진(간 74)
이홍표(의 58)
이희창(공 68)
이낙균(약 64)
임근규(미 57)
임동호(약 55)
임문빈(상 58)
임태영(공 59)
임창희(공 73)
장근숙(간 73)
장기열(치 55)
장기창(공 56)
장난희(간 74)
장동석(문 66)
장대욱(음 57)
장소현(미 65)
장원경(미 73)
장윤희(사 54)
장인숙(간 70)
장정용(미 64)
전경배(의 69)
전낙관(사 60)
전원일(의 77)
전범수(농 71)
전상욱(사 52)
정승주(생 72)
정병혁(농 70)
정수만(의 66)
정예현(상 63)
정연웅(상 63)
정인환(법 54)
정재형
정진우(의 66)
정현민(문 71)
정해령(간 72)
정황(공 64)
조경애(음 64)
조성하(치 64)
조상호(농 51)
조선주(간 69)
조재국(농 67)
주민희(음 51)
주정래(상 65)
지중근(농 56)
차중환(사 54)
최복철(공 70)
최영구(상 61)
최영순(간 69)
최영지(미 62)
최용완(공 57)
최종권(문 59)
추교훈(농 63)
한동수(의 60)
한성구(상 53)
한원민(의 59)

한정현(치 55)
한중철(치 62)
한홍택(공 60)
한호동(공 58)
함승욱(간 73)
현기웅(문 64)
홍병각(문 55)
홍선례(음 70)
홍선일(공 71)
홍성애(간 60)
홍수웅(의 59)
황건홍(공 55)
황현상(의 55)

뉴욕

강교숙(간 73)
강에드워드(사 60)
계동휘(치 67)
이강훈(치 65)
고애자(음 57)
곽노섭(문 45)
곽영국(상 60)
권문웅(미 61)
권정덕(의 58)
금영천(약 72)
김광현(미 57)
김광호(의 66)
김기택(수 81)
김동환(약 60)
김문경(약 61)
김병관(문 63)
김복영(간 69)
김세환(공 65)
김승호(공 71)
김영길(문 62)
김영무(공 75)
김영지(문 66)
김영숙(약 53)
김영철(의 55)
김영진(간 53)
김원주(의 54)
김용연(문 63)
김우영(상 60)
김옥현(의 59)
김유순(간 64)
김진희(약 56)
김정희(간 69)
김창수(약 64)
김창하(미 65)
김학자(간 59)
김현중(공 63)
리준우(문 65)
문석면(의 52)
민인기(의 67)
민준기(공 59)
박건이(공 60)
박경희(음 57)
박성원(음 69)
박수만(의 59)
박순영(법 56)
박승화(간 69)
박재은(미 63)
방준재(의 63)
배상규(약 60)
배정희(사 54)
변호련(간 63)
서랑(의 63)
서충선(사 57)
석창호(의 66)
선중철(의 57)
성기로(약 57)
손갑수(약 59)
손완배(농 70)
송근숙(간 66)
송기인(의 60)
송승길(대 69)
신두식(의 58)
신응남(농 70)
신재현(간 62)
신춘희(간 56)
안대홍(상 65)
안영자(사 63)
양성택(상 66)
오용호(의 66)
오용환(약 68)
우규환(사 60)
우상영(상 59)
원인소(문 67)
유재섭(공 65)
유태상(문 58)
유호근(문 71)
윤병남(사 62)
윤영섭(의 57)
윤인숙(간 63)
윤철(문 54)
윤희정(문 59)
이강욱(공 70)
이강홍(상 60)
이명중(공 72)
이문봉(미 76)
이상근(경 84)
이상무(의 56)
이영일(의 60)
이영재(사 58)
이유성(사 57)

이정은(의 58)
이재덕(법 60)
이재진(의 59)
이태봉(의 56)
이태안(의 61)
이해철(약 62)
이형근(수 60)
이흥우(공 50)
전성진(사 54)
전병삼(약 54)
정동성(상 58)
정해민(법 55)
정화웅(사 61)
조남천(사 59)
조대영(공 61)
조득환(의 61)
조중수(공 64)
진봉일(공 50)
차국만(상 56)
차수만(약 71)
최수웅(사 55)
최승웅(의 61)
최영태(문 67)
최정웅(시 63)
최한웅(농 58)
최혁(음 72)
최형무(법 69)
한병웅(문 71)
한승순(간 70)
허선형(의 58)
허영진(공 53)
허용웅(상 63)
허유선(생 83)
임정란(공 55)
홍정표(음 67)
홍종만(공 64)

뉴잉글랜드

곽노균(상 51)
곽노준(상 58)
김기남(간 67)
김선혁(약 59)
김성근
김옥동(사 58)
김형범(문 57)
박영철(농 64)
박종진(의 56)
송미자(농 62)
오계환(공 64)
윤진수(의 57)
이강원(공 66)
이규진(약 60)
이금하(문 69)
이은주(음 73)
이의인(공 68)
임영호(공 72)
장용복(공 58)
정선주(간 68)
정정욱(의 60)
주만연(상 58)
주창준(의 50)
최선희(문 69)

네바다

김영중(치 66)
김용재(의 60)
김택수(의 57)
김상순(상 67)
이학은(약 57)
정상진(상 59)
미네소타
남세현(공 67)
문성민(공 88)
변우진
송준진(치 87)
송세진(치 78)
송창원(문 53)
송재현(간 51)
주한수(수 62)

미시간

고선희(문 63)
고광국(공 54)
김국화(공 56)
김우신(의 60)
김재식(의 61)
김정화(의 56)
김희주(의 62)
남성희(의 56)
신동화(문 55)
오동환(의 65)
윤효윤(의 63)
이승자(간 60)
이성길(의 65)
이재승(의 55)
장철(의 65)
조문희(공 56)
조영현(음 95)
주명순(간 64)
하계현(공 64)
한영선(생 86)

북가주

강윤희(간 72)

강재호(상 57)
강정수(문 61)
권오형(사 61)
김기덕(문 74)
김성철(공 82)
김정희(법 56)
김현왕(공 64)
김희경(음 73)
남광순(문 64)
노상규(공 60)
민병덕(상 69)
박경웅(약 63)
박서규(법 56)
박영훈(공 72)
박종성(법 53)
부영무(치 72)
손창순(공 69)
송영훈(상 57)
신규영(공 64)
안호삼(문 58)
오명주(간 77)
온기철(의 65)
윤성희(사 58)
위장호(의 67)
이강우(문 59)
이성원(공 65)
이성형(공 57)
이은수(사 64)
이장우(문 72)
이정남(공 63)
이창환(공 56)
이관모(공 55)
임승래(문 66)
임정란(문 76)
전병련(공 54)
정지선(상 58)
정준일(간 67)
정한규(의 63)
조태묵(사 60)
전동우(공 63)
최경선(농 65)
한상봉(수 67)
홍병익(공 68)
황동하(의 65)
황만익(사 59)

샌디에고

남장우(사 56)
오계환(공 64)
윤진수(의 57)
이문상(공 62)
이영진(간 77)
이휘영(법 59)

시카고

강영국(수 67)
구경희(의 59)
구영미
김길준(의 59)
김갑중(의 57)
김규호(의 58)
김동희(공 66)
김병윤(문 65)
김사직(상 59)
김성일(공 68)
김승주(간 69)
김우주(공 69)
김용환(공 71)
김윤하(공 66)
김정수(문 69)
김현주(문 61)
노영일(의 62)
림근식(문 57)
민영기(공 65)
송기인(의 61)
박정일(의 61)
박창욱(공 56)
서상현(의 65)
소진문(치 58)
송재현(의 46)
신석균(문 54)
안신훈(농 61)
안영환(문 57)
안창현(의 55)
오명자(간 60)
유기정(간 72)
육길원(사 59)
윤경순(사 61)
윤덕상(치 62)
윤봉수(간 69)
이경미(미 69)
이덕수(문 58)
이동균(공 75)
이소희(간 68)
이승자(사 60)
이시영
이영섭(수 56)
이영우(문 66)
故 이윤모(농 57)
이종일(의 65)
이종일
임영진(의 56)
임현재(의 59)
장윤일(공 60)
전현일(농 62)
정승규(공 60)

정연학(공 63)
정은성(음 04)
조대현(공 57)
최대한(의 53)
최해수(의 53)
최희수(문 67)
한의일(공 62)
한재은(의 59)
홍철일(약 57)
황소나
황치룡(문 65)

알래스카

윤제중(농 55)

오레곤

계지영(문 60)
김영자(간)
박희진(농 78)
최용성(의 55)
한국남(공 57)
한영준(사 60)

오하이오

김태웅(의 61)
이길송(상 57)
명인재(자 75)
송용재(의 63)
유덕영(공 57)
이영웅(의 62)

워싱턴DC

강길중(약 69)
고무환(법 57)
곽명수(문 65)
권오근(상 58)
권정도(치 63)
권철수(의 68)
정한규(의 63)
조태묵(사 60)
전동우(공 63)
최경선(농 65)
김명철(공 60)
김영철(공 58)
김용덕(의 53)
김윤호(공 64)
김웅한(치 88)
김해식(공 59)
김희주(의 62)
나연수(사 54)
남춘일(사 69)
박영태(상 63)
박영호(공 64)
박은희(미 68)
박인영(의 69)
박일영(문 59)
박후우(문 61)
백순(법 58)
백용현(공 64)
서윤석(의 62)
서취원(의 57)
석균범(문 61)
신경은(문 65)
양광수(공 73)
오광동(공 52)
오인환(문 63)
우관해(음 63)
이강현(의 57)
원종민(약 57)
유달(의 61)
유영진(의 74)
유영준(의 70)
유영준(의 74)
유한창(공 69)
유홍열(문 74)
이규양(문 62)
이내원(사 58)
이서구(문 61)
이선구(문 65)
이성배(수 57)
이수안(공 54)
이연주(치 88)
이영덕(사 61)
이영목(공 59)
이윤주(상 63)
이재승(의 55)
이중국(의 52)
이준영(치 74)
이진상(공 57)
이철수(공 61)
이해철(약 62)
정원자(농 62)
조병선(의 65)
조영희(문 66)
조화영(문 61)

천건희
최경수(문 54)
최동호(문 68)
최재귀(미 63)
한의생(수 60)
홍영석(공 58)
황보한(공 56)

워싱턴주

권영희(약 66)
김교선(법 54)
김옥영(문 52)
김인배(수 59)
김재호(상 54)
김재훈(공 72)
류성열(공 72)
민영기(공 65)
박진수(의 56)
박호성(의 55)
변중혜(법 58)
안승적(농 59)
양용관(수 62)
윤석진(문 64)
윤태근(상 69)
이길송(상 57)
이명자(간 74)
이승윤(공 90)
이원섭(문 77)
이희백(의 55)
장대홍(공 65)
장석주(의 47)
장현길(공 60)
전병택(상 65)
정영자(사 56)
최준한(농 58)

유타

김인기(문 58)

조지아

김기준(공 61)
김영서(상 54)
김중구(수 73)
김학래(공 60)
김현희(간 59)
노한소(문 56)
백낙영(상 61)
서광모(공 65)
송용덕(의 57)
오경호(수 60)
윤영돈(법 59)
이종석(의 54)
임수암(공 62)
임한웅(공 60)
정선휘(공 65)
한성수(의 54)

캐롤라이나

김기현(문 52)
마동일(의 57)
이중영(문 58)
정신희(자 78)
한광수(의 57)

커네티컷

김기훈(상 56)
라찬국(의 57)
신경호(의 57)
최창송(의 52)
홍성휘(공 56)

텍사스

김정환(공 81)
박영규(사 66)
박유미(약 62)
박태우(공 64)
송요한(문 73)
유황(농 56)
윤영주(문 60)
이석호(농 78)
전중희(공 56)
이준영(치 74)
조진태(문 57)
진기주(상 60)
천양국(의 63)
황명규(공 61)

플로리다

김동한(문 53)
김성준(의 55)

김중권(의 63)
박창익(농 64)
오석일(의 64)
이정필(의 58)
임필순(의 54)
정의철(의 55)
조동건(공 69)
최준희(의 58)

필라델피아

강준철(사 59)
김경희(생 71)
김국간(치 64)
김규학(상 63)
김순주(치 95)
김영우(공 55)
김정현(공 68)
김재술(약 58)
김진우(공 62)
김현영(수 58)
배성호(의 65)
서의원(공 66)
서종민(공 64)
성기호(상 59)
성정호(약 59)
손재욱(생 77)
송성균(공 50)
신선자(사 60)
신성식(공 56)
심영석(공 76)
안세현(의 62)
엄종일(미 61)
오진석(치 56)
유영철(의 70)
윤경숙(문 59)
윤정나(음 57)
이규호(공 56)
이만택(의 52)
이문호(공 53)
이성숙(생 74)
정덕준(상 63)
전무식(수 61)
조영호(음 54)
조정현(수 58)
조화연(음 64)
주기욱(수 68)
지재원(사 68)
지홍민(수 61)
진병학(의 57)
최종무(상 63)
최현태(문 62)
한동휘(문 57)
한웅오(대 70)

하와이

김달욱(사 45)
김용진(공 50)
박성재(상 57)
안은식(문 55)
이재형(수 61)
하인환(공 56)
최경윤(사 51)

하트랜드

김경숙(가 70)
오태호(의 56)
이상강(의 50)
정민재(농 70)
최은관

휴스턴

김영일(의 55)
김충일(의 56)
박석규(간 59)
유한창(공 69)
이길영(문 59)
최관일(공 54)
최성호(문 58)
최용현(의 53)

룩키마운틴스

이경화(공 56)
전남민(사 72)

애리조나

진명규(공 70)

알림

동문들께서 보내주신 동창회비와 후원금은 매월 말일 마감해서 올립니다. 혹시 누락된 분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snuaausa30@gmail.com

일반후원금

김기원	공(사73)	200
김기원	공(의78)	125
김기원	공(대72)	200
김기원	공(문 64)	200
김기원	공(상75)	1,400
김기원	공(공53)	200
김기원	공(음64)	200
김기원	공(공68)	200
김기원	공(법55)	25
김기원	공(수63)	500
김기원	공(사60)	200
김기원	공(사66)	75
김기원	공(간54)	50
김기원	공(미62)	1,000
김기원	공(상59)	400
김기원	공(문66)	100,000
김기원	공(법58)	200
김기원	공(의66)	200
김기원	공(공61)	50,000
김기원	공(사70)	200
김기원	공(문66)	1,000
김기원	공(공57)	500
김기원	공(공53)	200
김기원	공(미62)	200
김기원	공(수58)	12,000
김기원	공(음72)	300
김기원	공(농55)	500
김기원	공(상68)	200
김기원	공(공59)	200
김기원	공(수76)	40
김기원	공(의63)	200
김기원	공(생77)	200
김기원	공(음56)	200
김기원	공(약57)	200
김기원	공(치56)	50
김기원	공(의62)	200
김기원	공(상58)	500
김기원	공(공61)	575
김기원	공(상55)	3,000
김기원	공(의61)	75
김기원	공(치63)	50
김기원	공(법57)	500
김기원	공(약64)	1,000
김기원	공(문66)	200
김기원	공(시60)	75
김기원	공(의77)	75
김기원	공(의65)	10,000
김기원	공(생72)	100
김기원	공(대92)	1,000
김기원	공(공64)	260
김기원	공(간72)	100
김기원	공(공57)	100
김기원	공(문59)	220
김기원	공(법64)	25
김기원	공(상53)	100
김기원	공(미68)	2,000
김기원	공(공60)	200
김기원	공(의55)	350
뉴욕		
김기원	공(사60)	200
김기원	공(의63)	50
김기원	공(음57)	50
김기원	공(상60)	200
김기원	공(약72)	1,000
김기원	공(공60)	200
김기원	공(공 71)	1,000
김기원	공(의54)	75
김기원	공(간78)	200
김기원	공(사58)	50
김기원	공(의63)	200
김기원	공(음65)	200

문석면(의52)	200
박순영(법56)	75
방준재(의63)	200
서량(의63)	75
선종철(의57)	100
신응남(농70)	2,400
오홍호(의66)	200
이강홍(상60)	200
이재덕(법60)	75
이진구(농60)	500
조남천(사59)	350
조태환(상56)	50
차수만(약71)	300
최수용(상55)	500
최한용(농58)	1,500
최혁(음72)	200
한승순(간70)	150
허선행(의58)	400
홍종만(공64)	200
미네소타	
문성인(공88)	50
네바다	
정상진(상59)	350
미시간	
김희주(의62)	225
남성희(의56)	100
오홍환(의65)	400
윤보윤(의56)	200
이성길(의65)	100
이정화(음56)	200
이재승(의55)	75
뉴잉글랜드	
윤상래(수62)	500
박영철(농64)	100
박종승(의56)	200
정선주(간68)	100
주창준(의50)	200
북가주	
부영무(치72)	200
이관모(공55)	200
한만섭(문48)	500
한상봉(수67)	500
황만익(사59)	200
샌디에고	
이휘영(법59)	75
임춘수(의57)	200
플로리다	
김중권(의63)	200
오석일(의64)	200
임필순(의54)	200
정의철(의55)	200
조경호(의66)	200
하트랜드	
고 차봉희(의51)	500
이상강(의70)	10,000
최은관	500
오레곤	
김상순(상67)	200
박희진(농78)	300
워싱턴	
민영기(공65)	75
이명자(간74)	800
텍사스	
박영규(사66)	200
이석호(농78)	200
진기주(상60)	500
황명규(공61)	200

시카고	
김현주 (문61)	100
소진문 (치58)	400
이영섭 (수56)	75
이용락 (공48)	1,000
임영신 (의56)	100
정의철	250
최희수 (문67)	200
한경진 (상59)	200
필라델피아	
윤경숙 (문59)	200
이만택 (의52)	400
이성숙 (생74)	200
이승공 (의63)	200
정태광 (공74)	100
지흥민 (수61)	200
진병학 (의57)	100
손재욱 (생77)	200
하와이	
김용진 (공 50)	100
조지아	
정양수 (의60)	25
김용건 (문48)	200
송용덕 (의 57)	200
워싱턴DC	
강지중 (약69)	500
고두환 (법57)	200
권철수 (의68)	200
김정호 (법56)	200
김진웅 (문58)	200
김진우 (치88)	1,000
박은희 (경4)	100
박은희 (미68)	100
박필영 (농69)	900
박홍우 (문61)	200
박홍록 (간72)	200
백순옥 (법58)	200
백순옥 (의62)	200
석준범 (문61)	200
석보환 (사68)	200
석보환 (문63)	600
유영준 (의70)	175
이건형 (수54)	25
이내원 (수58)	75
이선규 (문65)	275
이연주 (치88)	200
이영목 (공59)	200
정평희 (공71)	200
조화유 (문61)	75
테네시	
김경덕 (공 75)	100
캐롤라이나	
한광수 (의57)	500
캐나다 밴쿠버	
장희순 (문75)	388
커네티컷	
김기훈 (상56)	200
최창송 (의52)	500
애리조나	
진명규 (공70)	200
하트랜드	
김시근 (공72)	100
광고 후원금	
남가주	
강호석 (상81)	240
고자서 (인72)	600
김경무 (공69)	640
김양희 (을77)	3,700
김영탁 (공65)	480
김준중 (상59)	600
김자성 (의79)	1,500

김진빈(공66)	500
나두수(의66)	200
나정자(간70)	400
미주동창회(11대)	1,000
미주재단	17,000
민일기(약69)	500
나수경(생84)	4,800
박제환(문75)	500
박찬호(공58)	300
박주동영(사60)	480
서치원(공69)	2,500
신동국(수76)	240
이혜정(생77)	800
양수진(간80)	500
이강원(인76)	240
이기준(법54)	500
이명선(상58)	1,000
이범모(치74)	250
이병준(상55)	1,200
이상대(농80)	240
이원택(의65)	2,200
이종모(간69)	480
이태로(법50)	240
임춘순(상68)	400
정준호(인85)	240
정인환(법54)	600
정재훈(공64)	240
주영세(사59)	400
차미영(의76)	7,500
최무식(약66)	240
최용준(수81)	400
최효준(공58)	300
홍훈정(음70)	400
뉴욕	
김기택(수81)	240
김승호(공71)	1500
석창호(의66)	240
신은남(농70)	240
이진구(농60)	240
워싱턴DC	
남옥현(경84)	9,300
이내원(사58)	1,000
이태영(법60)	1,800
모교발전기금	
남가주	
박우선(공57)	300
박원준(공53)	700
배병욱(음58)	300
이범모(치74)	200
홍선일(공71)	100
조지아	
한성수(의54)	200
샌디에고	
임춘수(의57)	200
워싱턴DC	
권철수(의68)	100
최재귀(미63)	300
워싱턴주	
이원섭(농77)	150
오레곤	
김영자(간)	100
플로리다	
오석일(의64)	100
필라델피아	
손재옥(생77)	100
하트랜드	
김시근(공72)	100

장학기금		
남가주		
강효남 (공67)	1,000	
권기성 (대72)	100	
김봉성 (문64)	1,000	
김경무 (공69)	2,000	
김병안 (공68)	1,000	
김성찬 (문65)	6,000	
김종현 (문66)	10,000	
김원준 (공53)	300	
박지영 (문 66)	1,000	
서치원 (공69)	10,000	
오지홍 (시56)	1,000	
이범식 (공61)	100	
이인재 (시 68)	500	
신상옥 (시52)	100	
하기환 (공66)	500	
하홍택 (공60)	50,000	
한기웅 (문65)	200	
하트랜드		
이상강 (의70)	11,000	
뉴욕		
선종철 (의57)	100	
신영남 (농70)	200	
이강홍 (상60)	500	
미시간		
고광국 (공54)	10,000	
이정화 (음66)	175	
북가주		
신규영 (공64)	200	
최경선 (농65)	1,000	
한만섭 (문48)	500	
시카고		
김현주 (문61)	100	
이용락 (공48)	1,300	
최혜숙 (의53)	100	
커네티컷		
故유시영 (문68)	10,000	
워싱턴 DC		
오인환 (문63)	175	
유영준 (의74)	100	
조지아		
이종석 (의54)	200	
필라델피아		
손재옥 (생77)	100	
윤경숙 (문59)	100	
유영걸 (의70)	200	
Brain Network		
남가주		
한홍택 (공60)	500	
시카고		
이용락 (공48)	200	
조종행 (의63)	100	
필라델피아		
손재옥 (생77)	100	
워싱턴 DC		
서휘열 (의57)	300	
튀르키예 기부금		
하트랜드		
김시근 (공72)	100	
남가주		
노명호 (공61)	2,000	
이호진 (간74)	100	

지부분담금	
샌디에고	1,100
뉴욕	6,000
뉴잉글랜드	2,000
워싱턴DC	2,000
필라델피아	2,000
시카고	2,400
워싱턴	800
조지아	1,600
오레곤	600
플로리다	600
오하이오	600
알래스카	200
남가주	3,000
북가주	2,600
캘리포니아	400
하와이	300
미네소타	600
하트랜드	550
Charity Fund(나눔)	
남가주	
이법식(공 61)	100
임낙균(약 64)	3850
뉴욕	
차수만(약71)	500
필라델피아	
손재옥(생77)	100
시카고	
강영국(수 67)	100
우크라이나 기부금	
남가주	
구상선	50
노명호(공 61)	1,000
유미영	100
이정남	200
이호진(간74)	100
서진(간56)	3,000
안혜정(생77)	300
한홍택(공60)	1,000
홍중화(약74)	500
북가주	
이장우(문72)	100
뉴욕	
민준기(공59)	100
조상근(법69)	1,000
조지아	
김용건(문48)	200
유성무(상66)	300
오레곤	
한영준(사60)	100
워싱턴DC	
최재귀(미63)	200
커네티컷	
유시영(문68)	500
워싱턴	
이길중(상57)	100
시카고	
김신웅(생59)	300
재환수(사61)	200
휴스턴	
진기주(상60)	1,000
캐나다 밴쿠버	
장희순(문75)	100
뉴잉글랜드	
윤상래(수62)	200

동창회 후원금	동창 회비	업소록 광고비	특별 후원금
☐ \$200 ☐ \$500 ☐ \$1,000 ☐ \$ _____	☐ \$100 (2022.7 - 2023.6) ☐ \$200 (2022.7 - 2024.6) ☐ \$3,000 이상(증신이사회비)	☐ \$240 (2022.7 - 2023.6) ☐ \$480 (2022.7 - 2024.6) 일반 광고 문의: snuaausa30@gmail.com	☐ Scholarship Fund (장학금) \$ _____ ☐ Charity Fund (나눔) \$ _____ ☐ Brain Network 후원금 \$ _____ ☐ 모교발전기금 \$ _____

후원금 용도: 장학금은 뛰어난 동문들의 학업을 돕는데 사용됩니다. Charity Fund는 동창회 자선 사업을 위해 쓰입니다. 모교발전기금은 모교와 미주 동창회의 위상을 높이기 위하여 쓰입니다.

Brain Network 후원금은 석학 초빙 강연회 등 동문들간의 네트워킹 증진을 위해 쓰입니다. 종신 이사회비는 SNUAA-USA Century Foundation 에 적립됩니다.

동창회 후원금과 동창 회비는 회보 발간 및 미주동창회 행사와 제반 운영을 위해 사용됩니다. 동문님의 후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Total: \$_____.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Association in the USA

보낼 곳: SNUAA-USA, 2410 James M Wood Blvd., Los Angeles CA 90006-2005 | Tel: (213)908-5586 | Email: snuaausa30@gmail.com

〈보내주시는 회비 및 후원금 합계가 \$250 이상 되시는 동문께서는 영수증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한글이름:	영문이름:	단과대:	입학연도:	지부:
E-mail:		Cell Phone:		
주소:				

제16대 미주동창회

회장 노명호(공)
상임고문: 김중섭(문),
고문: 박중수(수), 주종광(약)

차기회장 이상강(의)
명예회장 신응남(농)

역대회장
박윤수(문), 강수상(의), 이병준(상), 오인석(법),
이용락(공), 오홍조(치), 이영목(공), 이진구(농),
송순영(문), 김은중(상), 오인환(문), 손재욱(가),
윤상래(수)

브레인 네트워크/포럼 위원회
위원장: 한홍택(공)
위원: 김정빈(공), 김재훈(공), 김유경(음),
차재호(농), 정호(공), 이관후(공)

후원위원장 서치원(공)
위원: 차민영(의), 강성진(문)

집행부
사무총장: 강호석(상)
총무국장: 이호진(간)
재무국장: 이윤중(미)
IT 국장: 심재호(공)
섭외국장: 안혜정(생)
홍보국장: 김자성(의)

동창회보
발행인: 노명호(공)
편집 고문: 박용필(문), 김정현(공)
편집위원: 김양희(음), 홍선례(음), 이준수(공)
장민구(공), 한정희(미), 허유선(가)

장학위원회
위원장: 한홍택(공)
위원: 황경순(공), 강호석(상), 남성우(공),
김태환(자), 홍주선(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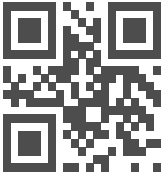
회칙위원회
위원장: 김병연(공)
위원: 김용현(상), 김지영(사), 성주경(상),
이민언(법), 조화연(음), 최경선(농), 최진석(법),
한재은(의)

포상위원회
위원장: 노명호(공)
위원: 각 지부 회장

감사: 김경무(공)
김영태(미)

서울대 미주동창회보 SNU Alumni Association USA

전화 (213)908-5586	이메일 news@snuuaa.org	웹사이트 www.snuuaa.org
주소 2410 James M Wood Blvd., Los Angeles, CA 90006-2005		
미주동창회 회보 편집 규정 본 회보에 게재된 모든 기고문은 회보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투고된 글의 게재 여부는 편집회의 등을 통하여 결정됩니다.		



미주 지역동창회 회장단

알림: 2022년 새로 지부장이 결정된 곳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snuuausa30@gmail.com

남가주 S.CA/NV (회계연도 Feb~Jan)

회장 김경무(공대69) T: (213)210-1110
kyungmookim@yahoo.com

차기 회장 임춘택(상대 68) T: (213)215-0446
ChoonTaikLim@gmail.com

북가주 SAN FRANCISCO (Jan~Dec)

회장 최경선(농대 65) T: (408)621-8080
kschoi@comcast.net

차기 회장 김범섭(공 79)

샌디에고 SAN DIEGO (Nov~Oct)

유재호(공대 90) T: (469)387-7922
blue9071@gmail.com

워싱턴주 WASHINGTON (Jan~Dec)

회장 임현민(공대 84) T: (425)444-3899
heonmin.lim@microsoft.com
mrmsft@hotmail.com

오하이오 OHIO (Jan~Dec)

이성우(상대 72) T: (614)370-5761
Rimshake@hotmail.com

하와이 HAWAII (Jul~Jun)

회장 성낙길(문리 77) T: (217)508-8711
nsung@hawaii.edu

차기 회장 전수진 T: (808)956-8283
soojin@hawaii.edu

북텍사스 LA/DALLAS (Jan~Dec)

김순기(치대 82)
EricSophia@gmail.com

중부텍사스 MID-TEXAS

이학호(수의대 59) T: (512)487-4390
Hakho3830@gmail.com

록키마운틴스 MT/CO/WY/NM (Jan~Dec)

최문기(공대 73)
mungichoi@hotmail.com

캐나다 밴쿠버 (Jan~Dec)

성영주(간호 86) T: (604)341-8808
helensungpark@gmail.com

오레곤 OR/ID (Jan~Dec)

박희진(농대 78) T: (503)648-0775
hjpark@flonomix.com

캐나다 앨버타 (Mar~Feb)

정충기(공대 70)
T: (403)617-7585

알래스카 ALASKA (Jan~Dec)

윤재중(농대 55) T: (907)223-0887
jaeyoon@hotmail.com

미시간 MICHIGAN (Jan~Dec)

회장 이광진(공 81), 248-595-2836
kmikelee@umich.edu

시카고 IL/IN/WI (Jan~Dec)

회장 황치룡(문리 65) T: (224)334-1224
chi.whang@gmail.com

차기 회장 조규승(문리 72) T: (847)922-4089
kscho@magicchef.com

미네소타 MINNESOTA (Jan~Dec)

회장 용정식(농화학 86) T: (610)952-3673
jyong@umn.edu

뉴잉글랜드 MA/RI/NH/ME/VT (Jul~Jun)

회장 임영호(공대 72) 978-490-0118
Ynghlim@yahoo.com

차기 부장 최진민(공대 71) T: (617)877-0387
jinchoi52@gmail.com

뉴욕 NY/NJ (July~Jun)

회장 금영천(약대 72) T: (718)791-4397
yckum52@gmail.com

차기 회장 연영재(공대 74) T: (201)233-7108
jayeon@gmail.com

워싱턴 DC DC/MD/VA/WV (Jan~Dec)

회장 정세근(자연대 82) T: (703)785-8467
saekewn@gmail.com

버몬트 VT

회장 박용해(상대 83) T: (203)767-8187
yhptax@gmail.com

필라델피아 PA/DE/S.NJ (Jul~Jun)

회장 이종태(사대 71) T: (267)266-2881
leejt53@gmail.com

캐롤라이나 SC/NC/KY (Jan~Dec)

정신호(자연대 78) T: (417)277-1636
sinho.jung@duke.edu

테네시 TENNESSEE (Jan~Dec)

김상호(공대 86) T: (856)386-1094
kimsh@ornl.gov

앨리조나 ARIZONA

정인주(농대 82) T: (602)510-9196
snuarizona@gmail.com

유타 UTAH (Jan~Dec)

김한섭(공대 93) T: (734)904-9672
hanseup@ece.utah.edu

조지아 GA/AL/MS (Jan~Dec)

배혜영(음대 79) T: (678)943-9043
lhybae@gmail.com

플로리다 FLORIDA (Jan~De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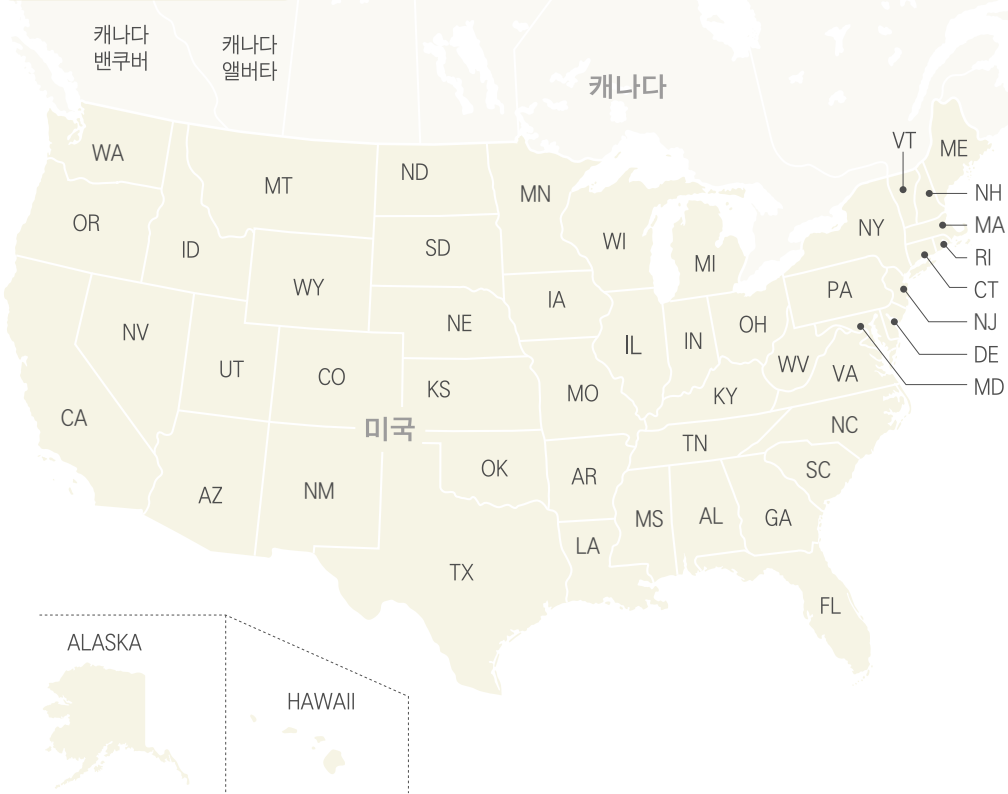
최희덕(사대 68) T: (973)610-5857
heeduklee@gmail.com

휴스턴 HOUSTON (Jan~Dec)

구자동(상대 70) T: (713)206-1041
jykey2003@yahoo.com

하틀랜드 IA/MO/KS/NE/AR/OK (Jan~Dec)

임소연(음대 91) T: (785)764-6985
syounchun@gmai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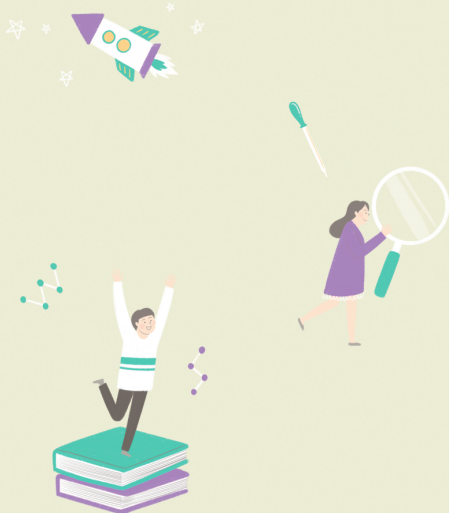


서울대학교발전기금
Seoul National University Foundation

만만한 기부는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생활비를 지원하는 선한 인재 장학금으로 사용됩니다. 동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만만한 기부 수혜 학생들의 따뜻한 이야기를 전합니다

서울대 선한 인재 장학생 감사편지에서 발췌



꿈을 향해 달려갈 수 있었습니다

선한 인재 장학금을 바탕으로 꿈을 펼치고 학업을 이어가라는 뜻이 담겨 있음을 깨달은 후 장학금에 달린 책임감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꿈을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는 것인 만큼 저 역시 책임을 갖고 장학금이 헛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누군가의 응원을 받는다는 것

입학했을 때부터 선한 인재 장학금을 통해 생활비를 지원받으며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아무런 경제적 지원도 없는 상황 속에서 만약 이 장학금을 받지 못했다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지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공부를 하는 데 있어 경제적 부담을 더는 것이 얼마나 큰 행운인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 바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간단 참여신청서 작성 후 휴대폰으로 사진 찍어
america@snu.ac.kr 로 메일 보내주세요
담당자가 참여 절차를 안내드립니다

만만한 기부 간단 참여신청서 [MMH23-03]

성명: _____ 연락처: _____
학과(특별과정): _____
약정금액: _____

Pay to the order Seoul National University Foundation



서울대학교발전기금 미주재단 Seoul National University Foundation, Inc.

NJ | 222 Bridge Plaza South Suite 720' Fort Lee' NJ 07024 Tel +1-212-768-9144 Fax +1-212-768-4494 E-mail kenneth@klcpagroup.com

LA | 2410 W. James M. Blvd. Los Angeles, CA 90006 Tel +1-213-435-1974 E-mail america@snu.ac.kr

SEOUL | SNU Research Park Main Building, 1 Gwanak-ro, Gwanak-gu, Seoul (08826) Tel +82-2-871-8004 E-mail snuf@snu.ac.kr

www.Seoulmedicalgroup.com

차민영(의대 76)

빠르고
정확한
리퍼!

메디케어 HMO 주치의 선택은
서울 메디칼 그룹이 최고입니다!



나를 가장 잘 아는 주치의 선생님!
빠르고 정확한 리퍼로 꼭 필요한 전문의를
찾아주는 서울 메디칼 그룹과 함께하시는
어르신들이 진정한 건강 영웅입니다!

메이저리그 코리안 특급
박찬호



시니어 여러분들이
건강영웅!

※ 광고에 나오는 인물들은 모두 실제 환자는 아니며 서울 메디칼 그룹의 모델들임을 알려드립니다.